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8.9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문화의 집 3층 (우) 100-391
전화 02)275-8505~6 FAX: 275-8506 KITA(천리안)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떻든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면 아니건, 부유하면 가난하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아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논다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귈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 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리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8.9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KDTA(천리안)



한국보육교사회



「스스로 노력하고 변화하는
교사는 아름답다」
사진:수도권 여름연수 모습

1998년 9월호(통권 63호)/첫발행 1992년 5월 25일/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정희연/묵은이 박정애, 이선주, 김희정/펴낸날 1998년 9월 2일

우리네

아이들

'98년 9월호

통권 63호

권두언	4
교육제안	6
보육정책	18
여름연수	26
유아체육	32
알림	35
어린이와 건강	36
교사의 의견	43
현장교육 1, 2	46
현장소식	51
사이버정보망	57
소모임소개	58
좋은 그림책소개	60
세상읽기	62
육아일기	64
오사카로 보내는 편지	66
아이들의 세상 만들기	68
우리들의 목소리 1, 2	70
보육계 풍향	76
소식과 소식	78
편집부에서	81

뒤늦게 감사드립니다.

생활주제와 연관주제 활용

바람직한 유아교육·보육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

한국보육교사회 여름연수 잘 치렀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

특수유아교육지도자 전문과정(9월학기)

어린이의 손상과 교사의 처치

매?...!...?...

'포구나루의 밥'을 마치고... / 생각하는 힘, 탐구하는 힘

신나는 여름캠프 모음

성폭력 뿌리째 흔들기

인천영아소모임 -까꿍-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우주의 무수한 삶 가운데 가장 핑계가 많은 '인생' 값하기 위해

유빈이의 여름방학 (1998년 8월)

편안하게 어우러지는 그런 빛 - 그 이름은 아줌마!

안산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비건뒤의 맑은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헤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보육계 풍향

소식과 소식

편집부에서

백예영

김연숙

김종해

김영금

손현민

인도주 의실천의사협의회

임미란

김영수 / 김실이

김효정 / 이연순 / 김금옥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순

김량희

위양자

나온미

주혜민

서지혜

박지예라 / 황미혜

뒤늦게 감사드립니다.

백혜영 · 본회 명예회원

6.4 지방자치선거가 끝난지 몇개월이 흐른 지금도 동네 골목길에서 주민들을 만나다보면 선거얘기를 합니다. “백혜영씨가 되었어야 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다음에 나오면 꼭 될 것이다” “아직 젊으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등등의 후담들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도 참 부담스럽더니 역시 세월이 약, 지금은 제자신이 많이 자유스러워졌습니다.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이고 생활정치는 주민들이 나서서 생활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성장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객으로서가 아니라 힘있는 결정권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 풀뿌리민주주의가 초기에 잘 정착이 되어야하며 그 일에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구로시민센터의 회원들이 거의 후보만큼 열정적으로 뛰어주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최대의 어려움은 IMF로 인한 주민들이 실의로 인한 선거자체에 대한 무관심이었고,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는 우리가 그냥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현실은 제가 선거에 처음 나섰던 명분을 더욱 구체적으로 심어주어 저에게는 힘으로 다가오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성이라는 것이 여전히 ‘여자가 무슨’이라는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편견의 벽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깨끗함, 철저함’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호소력을 갖기 도하는 긍정성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나는 네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허튼 짓하는 남자들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기 때문에 너를 위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할아버지도 계셨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여성이 부정부패 청산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정당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이고 생활정치는 주민들이 나서서 생활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성장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객으로서가 아니라 힘있는 결정권자가 될 것이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는 남성들의 전유물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인 우리사회에서 말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교통 경찰을 모두 여성으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부패문제는 이제 환경문제와 함께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의 결과는 41표차로 아깝게 패배하고 말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지역주민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저에게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애정을 잘 받아 안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기꺼이 보육교사회의 후보로 추천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비록 기쁜 선물은 못 드렸지만 이후로도 더 깊이 숙고하고 노력하여 열려있고 신뢰할 만한 지역사회를 일구는데 믿음직한 일꾼이 될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만큼 좋은 교육환경은 없을 테니까요. 한국 보육교사회의 무궁한 발전 기원합니다.



생활주제와 연관주제 활용

김연숙 · 본회 회원, 전씩씩이어린이집 교사

문제를 제기하며

전 켜켜이어린이집 김연숙선생님이 휴직에 들어가며 우리 교육활동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장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회원 여러분에게 제안하며 내용과 방식을 5차례에 걸쳐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공동체 지향을 위한 소그룹 활동과 대그룹 활동
3. 생활주제와 연관주제 활용
4. 관점을 달리한 주제 접근
5. 과도기적 교육계획안 사례-영아2세반

앞서 제안한 공동체교육과 마찬가지로 생활주제의 활용 또한 시설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제기에서 출발했음을 밝혀두고 싶다. 교육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다. 물론 아이들은 스스로 자라난다. 우리의 역할은 아이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배우는 데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아이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배우는 것은 어떤 시간, 무엇을 통해서 인가?

요즘 교육계의 풍토를 보면 마치 아이들은 프로그램(수업)을 통해서만 대부분의 것을 배우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프로그램이란 교육을 위해 계획하는 모든 것이다. 프로그램의 실행은 자유놀이 속에서, 게임을 통해서, 식사시간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프로그램을 몇 분간의 수업시간 정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이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는 것은 하루 몇 시간의 수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루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라고 생각한다. 하루의 모든 시간은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간이며 매 순간의 아이들의 느낌이나 경험들이 주제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이다.

주제 중심의 교육계획안 무엇이 문제인가?

교육계획안 작성시 대부분 주제를 중심으로 각 영역별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주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획안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제 중심의 교육계획안을 통한 교육

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가지 문제점과 제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문제점 지적은 크게 Ⅰ.주제의 문제-기존의 주제/생활주제, Ⅱ.교육계획안 형식의 문제, Ⅲ.주제와 영역 간 연관성 문제-의 세가지 관점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Ⅰ. 주제의 문제

주제는 왜 필요한가?

'주제'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거의 '단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왔었다. 단원에서는 주로 즐거운 어린이집-나-우리가족-우리동네, 동물, 식물, 계절 등의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주제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부터는 단원과과는 차별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다 아동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사실 많은 보육시설에서 단원과 주제를 혼합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주제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계획되고 그것들이 영역별로 배치되기 보다는 주제와 연관된 활동들 중심으로 계획안이 작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주제는 것은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주제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 계획시 그저 '소재' 정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구성된 주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다. 주제의 종류 또한 다양할 수가 있겠으나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생활주제'에 대한 부분이다.

주제 구성

주제를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해 보면 -기초 지식으로서 필요한 주제(색, 도형...)/ 아이들의 흥미가 지대한 주제(공룡, 우주...)/ 생활주변과 연관된 주제(우리동네, 날씨...)-등이 있을 수 있겠다. 문제는 "어떠한 주제를 다루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제구성을 하는가 이다.

만약에 '색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칫 활동계획을 잘못하게 되면 아이가 색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또 어떻게 느끼는가에 주목하지 못하고 단순히 색의 이름이나 종류, 분류등과 같은 활동만을 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제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이것을 주제라고 했을 때 주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연관활동만 계획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물론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된다. 주제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제 구성의 과정에서 바로 아이들의 시각으로, 아이들의 흥미에 맞는 내용들이 찾아지고 활동들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주제에서의 '주제'

생활주제에서 말하는 '주제'는 기존의 주제와는 차별성이 있다. 주제 안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주제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메시지들은 주제구성을 통해 활동계획에 필요한 내용들을 함축하게 된다. 주제는 매우 구체적이며 주로 아이들에게 흔히 제공되지 않았었던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 그러나 주제선정 자체는 아이들의 경험과 생활에 근거하기 때문에 접근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다. 예를들면 줄서기나 질서라는 주제는 지금까지 교육적 주제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새치기 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고 1]과 같은 주제 구성을 하고 그에 필요한 활동들을 준비할 수 있다. 준비된 활동들은 영역별로 배치되게 된다.

교육과정 중에 다룰 수 있는 교육내용이 전적으로 생활주제 중심으로 짜여질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수가 있다는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주제별 활동계획 방식

주제 선택에 있어 아이들이 개별활동 자체로도 흥미로와 하고 또 연관된 영역을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활동의 가치나 효과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일상 활동으로 제공해 주면 될 것이다. 반면에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일상생활 속의 사건이나 주제 혹은 아이들이 항상 접하고 배우게 되는 사회적 가치들을 주제로 삼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곧 주제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식', '여름', '도와주세요' 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다.

1 자식

자식이 어떤 물체에 달라붙는다는 현상은 아이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자석의 원리를 이용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석에 대해서 굳이 언어, 수, 음률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 교육계획안을 짤 것이 아니라 자석에 관해 필요한 활동들을 먼저 뽑아보고 자석에 대한 이해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활동계획을 잡은 후에 나머지 연관 활동들은 주제에 관계없이 일상활동으로 제공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자석의 성질을 경험한 아이들이 주제와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자석 모래놀이나 자석 자동차 만들기를 한다고 문제 될 것이 있겠는가?

2 여름

항상 빠지지 않고 채택되는 주제 중 하나가 여름이다. 여름이라는 주제를 계획하는데 있어 아마도 연관활동의 기근을 느낄 것이다. 아이들은 여름이라는 계절에는 별 관심이 없다. 여름에 대해서 교사 역시 아이들에게 줄 것이 많은 것은 아니다. 다만 여름은 물이 있어 신나고 시원함이 있어 고마운 것이다. 주제의 관점을 달리 하거나-

자세한 설명은 세 번째 주제에서 다루겠다-주제 기간을 짧게하는 것이 부담없지 않나 싶다. 굳이 연관시킬 필요가 없는 주제들을 구성상으로만 연관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혹은 꽤 흥미로와 하는 부분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단편주제로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 여름곤충에 대한 동화를 듣고 선종기나 부채에 관한 작업을 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여름이라는 주제로 연관시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많이 경험했을 것이다. 아이들은 잠자리를 보고 지난 여름의 피서를 연상할 수 있고 선종기를 보고 바람개비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계획할 경우 아이들의 생활이나 경험에 기초한 것들을 중심으로는 주제구성이 필요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단순 지식인 경우에는 개별활동으로 제공되어도 무방하다.

3 도와주세요

그러나 '도와주세요' 라는 주제는 다르다. 도움이라는 것에 대해 아이들은 바르게 경험하고 있어야 하고 바른 경험이 아이의 가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선생님을 도와주는 일을 주제와 관계 없이 경험 했다면 아이들은 혹여 '도움'이라는 것을 '어른의 심부름' 쪽으로 잘못 받아 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데 중요한 초기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I. 교육계획안의 형식이 주는 문제점

첫째, 교사 관점의 광범위한 주제 선정-프로그램 재창조를 방해한다

각 시설에서 어떤 형식의 교육계획안을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교육계획안 형식 안에 주제구성의 형식이 삽입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대부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제들은 가능하면 많은 내용을 포괄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것이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아이들의 관점이라기 보다는 교사의 시각으로 주제가 많이 다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정말 아이들에게 흥미롭고 아이들 관점의 주제라면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의 반응들이 나온다. 교사는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토대로 다른 활동을 계획할 수 있고 아이들 속에서 아이디어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예로 어떤 작품활동을 한 후에 나타나는 아이들의 반응은 두 가지다. "선생님 이거 집에 가져가도 돼요?" 와 "이거 어디다 놔요?"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작업을 서둘러 마치고 정리를 해버리려는 아이들의 반응은 어느 정도는 '별 흥미가 없었어요' 라는 해석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교사가 계획한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잘 제공했다'의 느낌 보다는 아이들의 각양각색의 반응에 교사 스스로 '재미있다'의 느낌이 드는 활동이 진정 살아있는 교육활동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주제는 구체적인 것이 좋으며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밀접한 것을 가지고 접근하



는 것이 좋겠다. 교육계획안의 형식에 얽매었다 보면 보다 창의적이고 융통성있는 교육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 경험해서 알 것이다.

구체적인 주제와 역동적인 주제구성, 그리고 미완성의 교육계획안을 아이들과 함께 완성해 가는 획기적인 시도를 한 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

둘째, 제한된 영역의 문제

영역은 항상 미술과 음악, 과학, 언어 등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획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게임은 단지 게임이라는 영역에 포함 될 수 없기 때문에 게임이 그저 게임으로서의 가치 밖 에 지니지 못하며, 더이상 연구, 개발되는 것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게임을 단지 게임의 가치로만 인정한다면 앞의 공동체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부작용 이 생길 수가 있다. 협동을 중요시하는 게임도 있을 수 있고, 접촉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게임이 있을 수 있고, 참여 자체를 목적으로 계획된 게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나치게 영역에 집착하다 보니까 영역 외의 것들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교사라면 누구나 미술, 음악, 과학, 언어... 등의 영역을 골고루 활용할 줄 안다. 일주일 내내 노래만 가르치거나 한달 내내 동화만 들려주는 선생님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영역구성을 달리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 본다. 기존에 있었던 환경프로그램이나 성교육 프로그램도 좋고 새롭게 아이들의 정체성 발달 부분이나 협동력을 강화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창의성이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첨가해 교사가 영역구성을 다시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자세한 예는 연재 내용 네 번째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Ⅲ. 주제와 각 영역과의 연관성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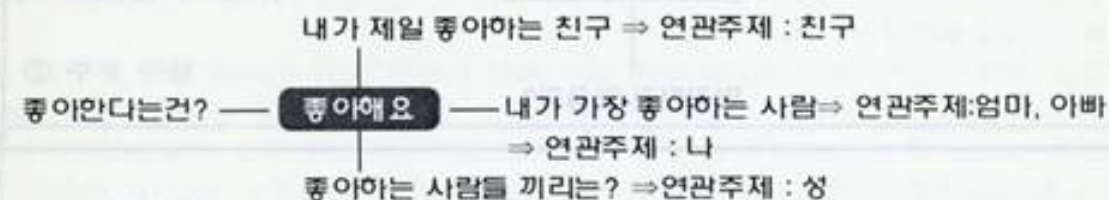
아이들의 사고의 연관성은 예측을 뛰어 넘는다. '나'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영역의 활동을 계획하지만 '나'를 주제로 한 노래나 동시 짓기로 인해 '나'라는 주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소재의 통일일 뿐 '나는 어디서 왔나? 나의 집, 내가 먹는 것, 내 친구,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감정, 내 목소리' 등 등의 자기 정체성을 갖는 데 필요한 교육내용들이 '나⇒우리가족⇒이웃⇒우리나라'라는 주제구성의 한계점으로 인해 제대로 계획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주제구성의 문제와 같은 것이며 주제구성을 잘 못 했을 경우 형식적인 연관성만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나'에 대한 것들을 경험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미술, 게임 등의 형식이 도입될 뿐이지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미술, 게임을 반드시 계획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생활주제와 연관주제

생활주제란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가 배워나가는 사회적 가치들을 비롯해 생활 속에서 발견된 짧고, 구체적인 주제를 통해 아이에게 필요한 경험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움이 필요해요', '좋아해요', '바람이 불어요' 등이 있을 수 있겠고, 아이들이 흥미로와 하는 보다 다양한 주제들은 교사의 많은 시도와 경험으로 인해 더욱 풍부해 질 것이다.

생활주제 '좋아해요'를 가지고 활동을 계획한다면 먼저 다음과 같이 주제 구성을 할 수 있다.



주제구성이 어려울 때는 아이들과 좋아한다는 말을 가지고 난상토론을 할 수 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좋은게 뭐니?"라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파생되는 내용들을 주제와 연관시켜 이끌어 나가면 좋아한다는 것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 또는 연상 이미지에 대해 대충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제가 전하고자 하는 가치는 아이들의 감정에 대한 확인(좋아한다는)과 나에 대한 관심이다. 주제구성이 이루어진 후에는 주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활동을 찾아낸다.

모든 주제를 생활주제로 대치할 수는 없겠지만 일상 생활에서 항상 접하고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주제화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주제라 하더라도 생활주제 방식으로 주제 구성을 이루고 각 구성내용에 알맞는 활동들을 교사가 아이들의 사고와 경험에 기초해서 준비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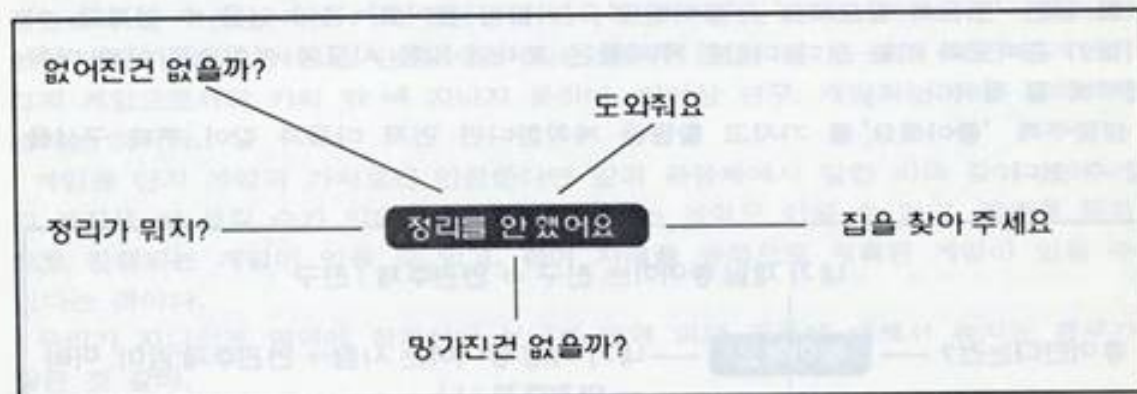
활 동 사 례

① 주제 구성의 예-[정리]



아이들에게 '정리가 뭐지?' 하고 물어보았을 때 아이들은 '치우는 거요'라고 대답한다. 어떤 아이는 '제자리에 갖다 놓는거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우리가 각자 집이 있듯이 물건도 자기 집이 있

고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어린이집 공간을 보면 잘 알 수가 다. 잘 정리가 안 되는 물건은 분명 분실된 것이 많다. 파손도 될 수 있다. 정리는 물건을 소중하게 하기 위한 약속임을 알 필요가 있다. 단지 창소 차원에서 정리를 강요한다면 아이들에게는 정리란 것이 어렵게 다가 올 수 있다.



정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구성을 할 경우 'OO는 어디에 정리할까?'

'같이 정리해요'

'정리를 하지 않으면 지저분해요'

'깨끗한 우리 어린이집'

등의 내용과는 분명 다른 점이 있다. '같이 정리해요' - '도와줘요'의 경우 제목상의 내용은 같지만 그 목적과 계획내용에 있어서는 실로 판이하다. 즉, 생활 주제의 주제 구성에서는 정리는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사례를 보고 생각해 보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두가지의 상황-상황1] 너무 많이 어질러 놓은 아이가 혼자 정리하기를 버거워하는 장면)에 한 친구가 등장 '네가 놀은 것은 네가 혼자 정리하는거야!'라고 말한다. 상황2] 같은 상황에 등장한 아이가 이번에는 '너무 많다,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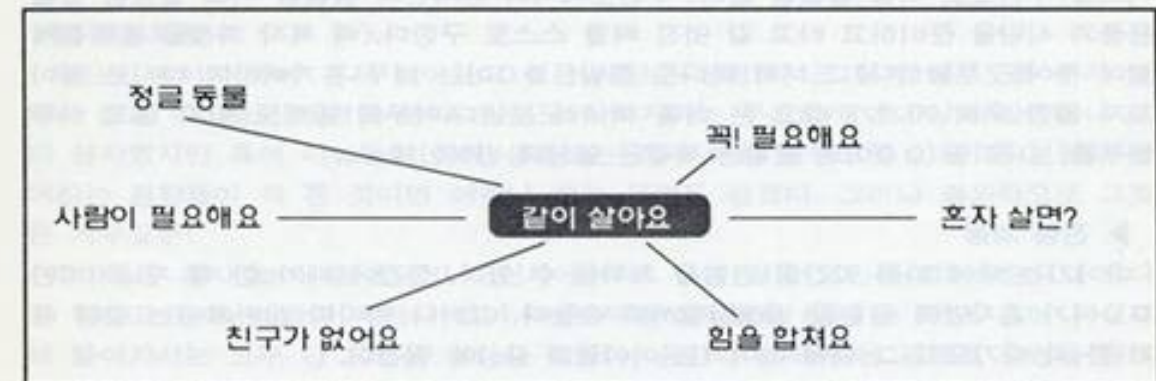
상황은 그림이거나 인형극이거나 실제 상황극으로 하거나 모두 무방하다. 단, 나쁘고 좋은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아이들의 "도움"에 대한 개념을 알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두가지 상황에서 아이들이 만약 '스스로 해야 하니까 난 1번 아이처럼 할래요'라고 판단 하였다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교육내용 부터 다시 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주제구성이 (여기에서는 제목정도로 요약하긴 했지만) 정리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았겠지만 아이들은 누가 말하지도 않은 엉뚱한 진리(?) 또는 명제(?)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 건희는 선생님한테 친구의 부당행위를 당당하게 이른다 "선생님! 내가 정리할라고 그랬는데 애가 자꾸 이거 한다구 달래요!"

2 주제 구성에 따른 프로그램 계획의 예-[같이 살아요]

생활주제로 활동을 계획할 경우 교사는 먼저 고정관념이나 관성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주제구성이 탄생할 수 있다. 어떤 주제든지 교사 자신이 기존에 알고있던 틀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같이 살아요]의 경우 교사는 먼저 스스로 '같이 사는 것이 왜 좋을까?', '아이들은 같이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생활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을까?', '우리 시설에서 아이들은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불편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지는 않나?' 등의 원초적인 고민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필요한 프로그램이 진정 아이들 속에서 창출될 수 있다.

① 주제 구성



② 프로그램 계획

이 주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함을 강조하거나 친구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고 아이들의 경험과 생각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혼자 살면 어떠 어떠 하다는 등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경험과 생각을 이끌어 내기 위한 프로그램을 고민, 개발해내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혼자 살면? ◁ 가상의 무인도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주인공 처럼 혼자 사는 상상을 해 본다.



▷꼭 필요해요 ▷ 우주로 긴 여행을 떠난다면 꼭 가져가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사람이건 동물이건 물건이건 각자에게 소중한 어떤 것) 생각나눔을 해 본다.

▷친구가 없어요 ▷ 자원지에 한해 직접 혼자 노는 것을 경험해 본다.

▷정글 동물 ▷ 정글의 동물들은 자기를 끼리 산다. 사람과 같이 사는 건?

▷사람이 필요해요 ▷ 몸으로 도형을 만들려면 몇 명이 필요할까? 더 큰 네모를 만들려면?

▷힘을 합쳐요 ▷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같이 가볼까?
여럿이 힘을 합쳐요 / 우리 조가 힘을 합쳐요

[3] 프로그램 실제

[무인도 이야기]

▶ 이야기 줄거리

일상 생활 속에서 같이 살므로 인해 오는 불편을 매우 짜증스러워 했던 00이는 어느날 무인도로 떠날 결심을 한다. 무인도에서의 혼자만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생활용품과 식량을 준비하고 타고 갈 멋진 배를 스스로 구한다.(배 제작 과정을 흥미롭게 보여 주어도 무방하다) 드디어 바다로 출발! 00이는 너무나 기뻐하며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 위해 자기가 타고 온 배를 떠내려 보낸다.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00이의 생활은 똑같은 일상의 반복인데.....

▶ 진행 과정

이야기는 때에 따라 약간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 중간에 배가 한 척 지나가지만 00이가 혼자만의 생활을 방해당할까봐 숨는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는 멀리 배가 한 척 다가오고 그 다음 이야기는 아이들의 상상에 맡긴다.

다른 사람으로 인한 불편한 점에 대한 묘사를 아이들의 심리에 맞게 사실적으로 표현해 주고 무인도에서 혼자 노는 과정도 단시간에 끝내지 말고 오래 오래 -실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망라해서-일상을 반복한다.

▶ 활동이 준 메시지

아이들은 무인도라는 것 자체에 무척 흥미를 보였고 주인공의 심리 상태에 매우 동감하는 듯했다. 그러나 하루 하루 혼자 생활이 반복되면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직접 주인공에게 놀이를 알려 주기도 했으나 점점 주인공이 기뻐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감과 호응(?)을 보내지 않았다. 주인공이 너무 너무 즐거워하며 소리치며 웃었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함께 웃지 않았다.

혼자의 생활이 어떻다고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주인공의 (가짜)웃음에 더 이상 호응하지 않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후속 작업을 제안했을 때에는 아이들은 저마다 장난스럽게 또 매우 호기심을 갖고 혼자 생활하는 것을 자원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활동에서.

▶ 교사 지침

⇒ 사전에 무인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지도를 이용해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 00이의 여행 전 생활이나 여행 후 생활에 대해 과장이나 편견없이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 대부분의 아이들은 혼자라는 경험을 집에 혼자 있었던 경험으로 밖에 생각하지 못한다.

가정이 아닌 집단의 소중함을 느끼기엔 직접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한계를 느껴 간접적인 활동, 놀이 프로그램으로 경험하게 하였다.

[친구가 없어요]

▶ 진행과정

무인도 이야기 후에 혼자 놀아보고 싶은 사람은 신청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자 했더니 많은 아이들이 신청을 했다. 아마도 이야기와는 무관하게 호기심이 발동하나 보다 생각했지만 혹여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불편으로 인해 혼자 놀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섞인 것이라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생겼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기우일뿐!

아이들은 혼자 놀아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 무척 많은 고민을 했다.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며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는 듯 했다. 그러나 실제에 들어가서는 모두 단 10분을 넘기지 못했다. 공간이 넓지 않은 관계로 순번을 정해 몇 명씩만 참여를 시켰다. 장소는 모두 세 곳-복도, 체육실, 사랑방.

다른 아이가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보고 바로 신청을 취소하는 아이도 있었고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경험해 보는 아이도 있었다. 활동후 소감을 나누는 것은 사실 어려웠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한 아이들에 한해 그 이유를 묻는 것 정도였다. 아이들의 대답은 거의 비슷했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칠판에 적어 주었다.

▶ 활동이 준 메시지

아이들의 대답은 대략 이런 것-심심해요, 싫어요, 재미없으니까요...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것은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말썽꾸러기이고 아이들과 마찰을 자주 일으키는 두 아이가 가장 빨리 포기했고, 아이들에게 인기도 좋고 대인관계도



무척 좋은 한 여자 아이가 약 15분 정도의 기록을 너끈히 세웠다. 물론 그때는 점심 시간이었고 이 아이는 사람방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나왔다. 또 놀라운 것은 말쑥꾸러기 중의 한 아이가 한 말이었다.

“혼자 노는건 싫어요, 그런데 같이 노는건 조금밖에 안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인육이가 자주 엉터리로 하면서 시켜달라고 해서요”

이 아이에게 ‘혼자’와 ‘같이’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또 “그래도 같이 놀아야지”라는 상투적인 말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미 ‘같이 노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혼자 노는 것 보다는 낫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 교사지침

⇒ 혼자 놀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 어떤 아이들은 ‘여기서(아이들이 놀고 있는 데서) 혼자 놀게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이미 혼자 아니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 ‘혼자’를 경험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어떠한 불리한 상황도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 유리한 상황도, 다만 아이들로 부터 공간적으로 격리될 뿐이다.

[사람이 필요해요]와 [힘을 합쳐요]에서 본 활동 메시지 요약

지면상의 이유로 낱알의 활동을 다 소개 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후 전달 받을 수 있었던 메시지들만 간략히 소개하겠다.

[사람이 필요해요]

.....(중략).... ‘세모 만들려면 몇 명 필요할까? 만들어 볼 사람?’

키가 작은 보미가 나오자 아이들은 ‘넌 작아서 안돼!’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아이들은 보미를 포함해 세모를(이등변 삼각형) 만들었다.

몸으로 한 활동 후 색종이 띠를 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긴 띠 두 개가 ㅅ 모양을 하고 있다-불은 쪽만 고정 시키고 아래 쪽은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다’ 우리랑 같이 세모 만들 사람?’

‘작은 띠가 달려 나와’ 나, 나, 나 나랑 만들자!’

‘넌 너무 짧아서 안돼!’ (빈 자리에 짧은 띠가 들락날락한다.)

‘흥! 너희 둘이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안돼지! 조금만 더 붙어봐’

-드디어 이등변삼각형이 만들어졌다.

이야기가 시작될 때 아이들은 보미를 쳐다보았고 여러 가지 세모, 네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신기한 눈으로 보았다. 직접 해 보기도 했으나 무척 어려워 하였다.

그러나 도형을 만들 때 이미 아이들은 여섯명이 네모를 만들거나 다섯명이 세모를 만들기도 하였기 때문에 색종이 띠로도 수학적 의미의 도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용한 도형 만들기’의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활동 의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직접 보여주는 모델링 과정중에, 도형을 만드는 데 있어 각각의 선들이 길이와 관계없이 각기 다른 모양의 도형을 만들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힘을 합쳐요]

아이들이 각 개인의 역할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이들이 하는 놀이나 교육활동 중 상당 부분이 아이들의 능력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공동 그림 제작을 위해 소그룹을 지어 주지만 아이들은 당연히 잘 하는 아이에게 중요한 책임을 맡기게 될 것이다. 더욱이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잘하고, 못하고’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 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여럿’이 불편할 때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활동을 계획함에 있어 구성원 모두의 역할이 소중한 것이어야 다른 사람의 역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의도에 맞게 계획된 활동이 [날말기차]인데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굴고루 썬 조를 짠 후 조 이름을 정한다.(영역을 정하고-예를들어 먹을 것 중에서) 각 조에 준비한 종이 말대를 나누어 주고 같은 크기의 카드지에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의 이름을 적어서 이어 붙이면 된다. 말대를 미리 풀지 말고 하나씩 붙여 나가면서 서서히 푼다.

중요한 것은 글씨를 쓰는 사람과 카드지를 오릴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각자 자기 영역을 맡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종이말대는 카드지가 붙을 정도의 크기로 길이만 길게 연결해 약 3~5미터로 둘둘 말아준다.)

아이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저마다 먹을 것 이름을 대며 길이를 늘려 나간다.

예상 외로 평소 아이들 사이에서 어린 취급을 받았던 아이가 먹을 것 이름을 줄줄이 대는가 하면 글씨를 잘 쓰는 아이가 없는 조에서는 교사에게 글씨를 써달라고 해서 그걸 보고 쓰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큰 전지에 아이들이 물어오는 글자들을 써주었으며 글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아이까지도 부담없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이 활동의 목적이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느꼈다)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참여했으며 일부 자기 혼자서 오리고 쓰고 다 하는 아이도 있었다. 당연히 그 조는 작업이 늦어졌으며 아이디어도 팔렸다.

완성후에도 아이들은 작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자기 조에 대한 소속감도 작업 후 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서로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조의 것을 훑쳐보는일도 있었다.

아이들이 정한 조 이름은 껌 조/아이스크림 조/쇼콜릿 조/앵두 조 였고 음식 이름은 그리 다양하게 나오지는 않았다.

바람직한 유아교육·보육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

김중해·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편집자주 : 7월 15일 성공회대강당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연합, 한국YMCA 공동으로 주체한 '바람직한 유아교육·보육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간 상반기 동안 진행되어온 '유아교육법안' 제정의 찬반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일찍이 본회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유아교육관련단체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주시하던차에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이토론회에서도 '유아교육법' 제정은 현실성과 시효성이 없다는 의견하에 반대의 입장으로 모아졌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오셨던 김중해교수님의 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에 실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논의의 방향에 대해

1. 스웨덴 보건사회부 장관의 업무 지침

첫째; Put children first; What is good for children is good for everyone.

2. 보호와 교육/복지와 교육의 중요도/포괄성

취학전 아동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다 보면 보호와 교육을 구분하고 마치 교육이 보호보다 우월할 것이라는 가정들을 접하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는 성장하는 것이지 보호받고 교육받는 것은 아니다. 취학전 어린이에게 보호와 교육이라는 용어 자체도 불만스럽지만 이 둘이 분리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어린이를 건강하게 키운다'라는 관점에서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

3. 취학전 아동에 대한 정책 방향

취학전 아동에 대한 대책은 단순히 어린이에 대한 대책이 아닌 가족, 노동정책과 연계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공교육과 시설별 2원화 체제, 연령별 2원화 체제와의 관계

유아학교만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교육이 가능한가?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문제점, 공공성의 부족 문제는 지나친 사립의존도에 기인한다는 인식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I. 취학전 아동과 관련된 선진국의 경험들

1. 스웨덴

보편적 평등주의 추구, 포드주의적 경제의 탈피라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에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따른 다양성의 추구.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유연화를 위해 two-earner, double-career household(맞벌이 가정)지.

고용율의 증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서비스 영역에서 여성고용 확대

주부의 경제활동과 출산, 육아의 조화가 가능한 다양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부양 서비스 제공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율과 출산율이 유럽의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 비해 높다.

서비스들: 부모의 육아휴가와 육아휴직(유, 무급), child care(day care) services, pre-schools, 방과후 아동 보호

대체로 0세는 가정육아(육아휴가와 휴직 이용, 부모중 일인이 선택 사용, 일정 기간은 공동 사용 가능)

1-5세는 day care 이용

6세는 pre-schools로 통합(원하는 경우 취학 가능)

7세부터 의무교육 취학

2. 유럽대륙국가(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노동공급 축소 정책 유지: 남성 노동자의 조기 퇴직 유도 + 여성노동자의 퇴출 유도 가족주의적 정책 성격: standard worker family 상정(주로 남성인 주소득자의 노동소득에 가족의 생계 의존), 여성, 특히 주부는 어린이와 가족의 사회적 부양 부담.

소득보장제도에 비해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결여, 시장에 의존.

높은 노동비용으로 시장에서의 child care도 활성화되지 못함.

조세제도에서 맞벌이 주부에 불리한 제도.

결국 여성의 취업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육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여성은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결혼 또는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경우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산층 이하로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특히 유럽에서는 편부모 가정의 빈곤율이 높다), 결혼 또는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인구증가율 또는 전체 인구중 아동의 구성비가 떨어진다. 이는 인구 구조에서 차세대의 노동력과 사회적 부양력의 저하라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Ⅲ. 유아교육법 시안의 문제점

1. 유아학교의 실체는?

현행 학교와는 다른 학교라는데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학교, 특히 초중등학교의 문제점이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잘못된 이해와 기대, 상술의 조합)

국민회의의 개혁 전후 대비표를 보면 개혁후의 유아학교의 내용은 시설명과 법적 근거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개혁전의 보육시설의 내용과 동일하다. 유아학교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자료만으로 평가하면 유아학교는 기존의 유치원보다는 어린이 집에 더 유사하거나, 이는 보육시설의 현 운영방식이 유치원보다 우월하다는 이야기(?)로 해석 가능하다. 유아학교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교육부 산하의 유아학교로 일원화로 전환하는가 이유가 불분명.

〈표〉 개혁전후 대비표

구 분		현행		개 혁 안	
		보건복지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시 설 명		보육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교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	영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대상 아동	연령	만 0~5세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	만 3~5세	만 0~2세	만 3~5세
	특성	맞벌이자녀 +일반자녀	일반자녀	맞벌이자녀	맞벌이자녀 +일반자녀
목 적		보호·교육기능	교육기능	보호·교육기능	보호·교육기능
운영시간		종일제(12시간)	반일제(3시간)	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야간제 등
5세아 무상교육		무상교육	무상교육	-	무상교육
비용부담		저소득층:정부지원 일반:보호자부담	국공립:정부지원 사립:보호자부담	저소득층:정부지원 일반:보호자부담	저소득층:정부지원 일반:보호자부담

*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은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로 이관함.

*출처: '국민의 정부'의 유아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2.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차별적 대책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의 유아학교라는 데에서 시행될 내용은 기존의 어린이집에서 시행되었던 내용과 더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대책은 차별적이다.

수정 법안의 부칙에 보면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아학교로 바로 인정하면서 보육시설은 법 시행 6월 이내에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여 신청 절차를 거쳐야 유아학교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그 기준에 있어 서로 상이하다. 이중에 교사 자격-유아교사 1급과 1급, 보육교사 1급과 2급의 자격은 유아교사가 더 엄격하다. 물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어린이가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시설내의 구비 시설이나 어린이 1인당 면적,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사 1인당 어린이의 비율은 유치원이 더 바람직한 것만도 아니다.

유아학교의 실체나 설립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태를 정확히 비교, 평가하지 않은 이러한 조치는 차별 또는 불공정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이는 교육이 보육보다 또는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다시 말해 현재 보육서비스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그래서 유아교육법이 유아교육 공급자의 독점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

3. 공교육화 · 학부모의 부담 완화에 대해

유아교육법안의 가장 큰 목적 또는 장점은 공교육을 추진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아마 그것이 유치원이 됐던, 어린이집이 됐던 또는 유아학교가 됐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전혀 없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아학교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며 더욱이 현재의 추진 계획을 보면 과연 공공성의 강화 의지가 있는지, 또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의심스럽다.

공공성의 확보, 그리고 학부모의 부담 완화는 정부 재정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구두선에 불과하다. 현재의 예산에 이러한 재원이 준비되어 있는지, 앞으로의 재정 운영 계획에 이러한 목표가 반영되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현재의 추진 계획에 보면 기존의 지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기존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국공립 또는 정부지원시설인가 아니면 민간시설인가 사립유치원인가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점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된다. 다시 말해 유아학교의 공공성이 더 강화된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부모의 부담이 증가될 위험도 있다. 현재 반일제로 운영되는 유치원에서 전일제로의 유아학교로 전환된다면 이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시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추가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비용은 보호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어린이집에서 유아학교로 전환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그대로 유지할 때 이 재원을 어느 예산에서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교육부에는 이 예산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만약 복지부의 기존의 예산을 전환한다면 영아보육을 공보육화하겠다는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전액을 보조한다는 같은 계획안의 내용(이 자체도 가능할 것인가는 의문시되지만)은 불가능한 계획이다. 결국 공교육의 추진으로 학부모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은 계획일 뿐,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의지가 희박하다는 것은 법 시안의 수정안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수정 내용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27조(비용의 보조) 부분이다. 원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사립유아학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한다"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한다"로 되어 있었다. 그나마 이 조항은 5조(무상교육)의 "취학직전 1년의 유아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 순차적으로 실시한다"의 조항과 함께 문제가 많은 유아교육법 제정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 주는 조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정 시안에는 이 내용이 전부 " --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되었다. 비용의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래서 안해도 되는, 결국은 안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공교육 의지의 절대적인 후퇴이다. 이미 지난 정권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5세아 무상 교·보육도 IMF이후 예산 확보 문제로 순차적으로, 언제가 될 지 모르지만 연기되었고 여기에 비용의 보조도 불투명하다면 유아교육법의 제정 근거는 이미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이 되었건 공보육이 되었건 공공성의 확대는 단순한 의지의 표현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반드시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정책이 실천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예산 확보와 재정 지원 방안이 없는 유아교육법의 제정과 유아학교로의 전환은 공교육과 학부모의 부담 완화라는 미사여구 하에 알맹이 없는 공약만을 실천하려는 일종의 속임수에 불과하다.

4. 기타

1) 추진안에 다양한 기대 효과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유아학교의 안과는 별개의 문제들이다. 예컨대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자녀에게 질 높은 보호와 교육을 평등하게 제공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인다, 유아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 유아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시설의 난립과 공급과잉을 해소한다, 학부모의 지나친 요구와 간섭에서 벗어난다, 사립기관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된다 등의 효과는 근거가 미약한 주장에 불과하다. 유치원이 되었건 어린이집이 되었건 이러한 문제들은 이들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정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이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라는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는 아니다.

2) 학부모의 부담, 유아(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의 차이 등은 주로 비용부담을 부모의 책임으로 규정한 정책 정향과, 국공립인가 민간(사립)인가에 의해 지원이 달라지는 지원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대한 대안과 사립(민간)시설의 서비스 질의 담보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3) 방과후 보육은 방과후 교실로 전환한다는 안도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대안은 될 수 있으나, 학교에서의 방과후 교실이 3-4시 이전에 종료된다는 점에서 취업 주부의 육구는 충족시킬 수 없다.

4) 2세미만으로만 보육을 실시할 경우 공보육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IV. 정책 방향에 대해

1. 공공성 확대의 방향은 시설중심의 지원에서 아동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시설과 프로그램의 선택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

2.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 양육은 혁명의 대상이 아니다. 현행 체제는 이미 십수년간 시행된 결과이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기존의 체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의 통합은 기존의 문제를 확대 재생산할 뿐이다. 먼저 통합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합이 필요하다면 우선 통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동안 이 통합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들이 각자의 영역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합이 바람직하다면 연령별 2원화 체제보다는 완전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적 의견이다. 2세이하의 복지부 국민이고 3세-5세는 교육부 국민이라는 연령별 구분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과 양육이라는 관점에서 기능에 따른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유아교육법 제정 추진 보류에 관한 건의

1. 법제정 추진 보류에 관한 의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안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정부 부처와 관련기관 종사자 및 관련학과간의 이해적 대립과 갈등의 양상으로 진전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본 단체들은 유아교육법안을 둘러싼 현재의 논의가 '아동을 위해 바람직한 영유아보육과 교육제도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논의를 생략한 채 단지 찬성과 반대라는 대립적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본단체들은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입장을 잠시 접어두고 '바람직한 영유아보육, 교육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7월 15일 '바람직한 영유아보육, 교육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현 유아교육법안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현 유아교육법안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바람직한 영유아보육, 교육제도의 방향성이 논의되었습니다. 토론회결과 현 유아교육법안 제정을 조급하게 진행시키기보다 관련 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토론회를 통해 유아교육법안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더욱 바람직한 제도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현 유아교육법안이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논의되었습니다.

2. 토론회에서 제안된 문제의식

1) 유아학교체제를 통한 공교육화, 과연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에 바람직한가?

현 유아교육법안은 국가가 관리/감독/운영하는 학교제도 중심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제도 중심의 교육이 3-6세의 저연령 아동에게 적합한가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현재의 학교제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학교개념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개념이 무엇인지는 법안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제대로 시험되지 못한 대안적 학교유형이 유아교육학교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초중등학교의 문제점이 유아학교에서도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률적인 유아학교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힘들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대안교육 체제를 수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유아학교를 제도화시키기 보다는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욕구와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교육의 선택권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률적인 제도화에 의해서만 공교육체제를 마련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교육형태와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정부의 전면적 재정지원 없는 유아학교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가?

공공성의 확보, 학부모의 부담 완화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진 계획에 보면, 기존의 지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 또는 정부지원시설인가 아니면 민간시설이나 사립유치원인가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점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유아학교로 전환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그대로 유지할 때 이 재원을 어느 예산에서 확보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결국 공교육의 추진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한다는계획은 계획에 그칠 우려가 큼니다. 이러한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재정 지원방안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관한 논의는 아동의 입장에서 신중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양육은 혁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십수년간 시행된 현행 제도는 물론 여러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 문제를 극복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체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의 통합은 기존의 문제를 확대 재생산할 위험이 큼니다. 먼저 통합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통합이 필요하다면 일정기간동안 통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이 각자의 영역내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과정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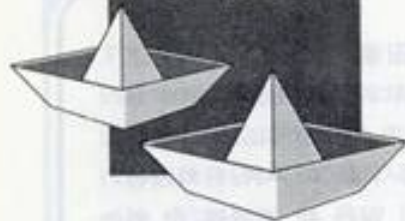
따라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화없이 양측의 의견이 팽팽이 맞서고 있는 현시점에서 법안의 장단점에 대한 검증없이 법제화를 서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선, 유아교육법안의 제정을 잠시 미루어 놓고, 유아교육법안의 타당성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는 양측간에 충분한 토론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단체들은 유아교육법안 제정이전에 좀더 개방적인 자세로 각 기관드러이 면밀한 현실에 대해 진단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람직한 영유아보육, 교육의 개혁방식을 찾는 작업을 선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998년 8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운환 유현석 이설조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남주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은희 한명희



한국보육교사회 여름연수 잘 치렀습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변화하는 교사는 아름답다.

김영금 · 광주보육교사회 사무국장

“

본회 창립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여름연수를 서울, 수도권, 광주, 전주권, 대구, 부산권 세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지각연시절부터 전국의 회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 1박2일 또는 2박3일간의 대장정을 떠나던 수련회를 교사연수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변신(?)하는 순간입니다. 보육교사의 재교육의 장과 지역보육교사회 강화라는 목적으로 가까운 장소에서 유익한 감동을 느끼기 위해 많은 보육교사들이 참여하였고 각 권역을 담당할 주체들은 성심 성의껏 연수를 치렀습니다. 아래의 글은 연수를 진행한 주체들과 연수를 참여한 교사들의 느낌과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알찬 교육감각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부산, 광주, 전주 보육교사회 우리회원들 너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보육교사회 창립 이후 첫 연수개최!! 그리고, 광주지역에서는 처음 시도해보는 보육교사 연수임에도 '주게스토페디'라는 말에서 오는 생소함이라든가 요즘 한창 관심이 되고 있는 음악을 비롯한 특기교육의 열종과 같은 지역적 욕구가 어느정도 맞아떨어짐으로서 의외로 많은 보육교사들이 참여한 연수였다(다른 연수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비록 적은 수이지만...)

이번 연수의 제목은 바로 주게스토페디-'암사'를 통해 아이들이 잠재능력을 일깨우는 통합예술교육'이다. '연수'의 내용으로 봐서 굳이 '주게스토페디'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우리식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서양교육의 사조를 더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에 그렇게 붙일 수밖에 없었다'는 감사님의 이야기에 조금은 씁쓸함과 함께 그건 우리교사들 스스로가 반성해야 할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우리의 미래를 가꿀 아이들을 키워내는 유아교육에 있어서만은 마치 패션의 유행을 따르듯이(수시로 변화해 결국은 몇번밖에 못 입고 버리는...)외국의 교육사조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무분별하게 도입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건 결코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외국의 교육사조라 할지라도 우리의 고유 정서와 맞지 않을 땐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음악교육은 우리 음악이라고 한다. 우리 언어의 흐름이 살아있고 문화,



종교, 역사의 흐름이 담겨있는 민족음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 교육사조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려 한 이번 '주게스토페디 통합예술 교육'의 소개는 그런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연수의 또다른 의의는 한국보육교사회 차원에서 연수의 내용을 선정해내고 '서울'이라는 한정된 장소가 아닌 여러 지역에서 지역의 실무력을 바탕으로 연수를 치러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지역의 보육교사들은 좀더 가까운 곳에서 좋은 내용의 연수를 접함으로써 좋고, 지역 보육교사회는 자체역량을 키움과 동시에 교사회를 알려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특히나 우리 지역은 전북보육교사회와 함께 준비함으로써 거그와(!)의 친밀감이 더해지고, 전북보육교사회의 장점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을 소중한 경험으로 삼아 한국보육교사회 중앙 조직은

앞으로도 지역교사회에 대한 지원(재정적인 지원만을 말하는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지부 조직이 튼튼함으로 중앙 조직이 더 감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연수에 참여했던 교사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보고 놀라웠던 한가지는 우리와 같은 지방에서는 교육의 기회와 상당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동안 2-3번의 교육감화나 연수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교사들 스스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졌고, 그럼으로 자신을 부단히 발전하고 변화시켜 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이번 연수준비과정에서 한가지 반성해야 할 점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회원 전체간에 사업 전반에 대한 공유와 함께 회원 개인의 역량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몇명만 모여 똑딱 똑딱 준비할 것이 아니라 회원 개개인의 특성을 잘 고려해 매사업 준비에 적절히 참여시킴으로서 사업공유의 폭도 넓히고, 회원의 역량을 키워내는 것도 중요하리라 본다. 그렇게 함으로 좀더 내실 있는 교사회 조직이 되리라...

이젠 후속 작업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남아있다. 이번 연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만든다면 더욱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교사회의 각종 교육내용에 대한 자료도 보내주고, 그때 그때의 사업들을 잘 알려내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수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특히 한국보육교사회 중앙 집행부 식구들...수고하셨습니다.) 참여하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교사들이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어려운 조건을 이겨낸 여름연수!!

한예정 · 부산 진구 보육교사회 회장

해 마다 해온 한국보육교사회 여름연수를 이번에 권역별로 주게스토페디 통합교육을 가지고 연수를 결정하고



중앙사무국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통해 주게스토페디와 첫 만남을 가지면서 막연하게나마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올랐다. 우리회원 뿐 아니라 다른 많은 교사들의 강좌 참여유도를 위해 광고전단을 어린이집과 보육교사훈련원으로 띄우며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처음엔 문의가 없어 걱정도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게스토페디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들과 각원의 많은 관심으로 문의가 늘어갔다. 부산보육교사회가 이번 연수를 맡았을 땐 회장님이 몸이 불편해 쉬고 있었고 함께 일을 하던 교사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휴직을 하게 되어 조직적으로 힘든 시기였다.

그래서 운영위의 적은 인원으로 추진하다보니 준비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연수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많아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연수를 계획해 놓은 그 즈음 수도권, 경기지역에 큰물나리가 나서 차질을 빚을까봐 노심초사했더니 연수당일 영남권에는 다행히 비는 오지 않고 비가 오는 서울에서도 기차는 운행이 정지되었고 비행기 이착륙은 가능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더웠지만 강의를 듣기 위해 교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멀리 대구에서도 한국보육교사회 회원들 많은 교사들이 함께 참석을 하였다.

오전 강의는 이론과 음악교육이 주를 이루었는데 음악을 전공하신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음악교육이 너무 서구화되어가고 공부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많음을 지적하시고 우리 것에 대한 애정과 아이가 온몸으로 느끼고 즐거울 수 있어야 됨을 강조하였다. 우리교육현실이 그렇지만

즐거워야 할 음악까지도 그렇게 되어버렸음을 새삼 인식하고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악기연주로 들어가서 평소 장구랑 북은 현장교육에서 많이 하고 있던터라 낯설지가 않았는데 리코오더나 실로폰은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아 처음엔 어색하기도 했는데 나중엔 북과 장구 리코오더와 실로폰 등의 합주로 어우러지기도 했다. 또 평소엔 북장구를 자주 접하지 못한 교사들에겐 잠깐이나마 만지고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다.

미술이론에서도 우리 것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강조하시며 우리선조들의 일상도 구웠던 먹과 붓으로 한지에 동그라미를 이용한 여백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표현해 보게 하였다.

점심을 먹고 오후강의에서는 온몸으로 아이들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마지막 강의인 미술 작업은 기후가 불안한 관계로(강사님이 아침에 비행기 기류가 불안정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일찍 올라가셔야 되어서 함께 하지 못하고 교사들끼리 마무리작업을 했다.

연수를 마치고 평가를 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부산까지 오셔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 하루만에 다하려고 하다보니 일정이 너무 빡빡했고 시간에 쫓겨 실기를 함께 해보고 발표하면서 선생님의 조언을 듣지 못해 좋은 이론이 실기로 모아지지 못한 것 같아 섭섭하고 아쉬웠다.

더운 날씨로 에어컨바람이 있음에도 연신 손부채질을 해야했던 강의실에서 자리를 뜨지 않고 열심히 참가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강의해주신 박성순선생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신나고 즐거운 경험 「주게스토페디」교육

최윤진 · 서울, 한미어린이집 교사

우리 아이들의 음악교육이라 하면 피아노 학원에서 건반을 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대부분이다. 어린이집에서의 음률교육도 짜여진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면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봄이면 봄단원에 맞는 노래를 어느 어린이집에서 모두 배운다. 어린이집을 2-3년째 다닌 아이들에게 더이상 새노래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늘 교사에게는 기관에 오래 다닌 아이들이 신경이 쓰인다. 새노래를 선정할 때마다 고민은 되지만 특별한 대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것은 새노래 뿐만이 아니다. 만화노래나 체조노래에 맞추어 하는 신체활동도 곧 바닥이 나고 만다. 분명 학교에서 배울 때는 신체발달에 맞는 창의적인 동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배웠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은 참 막막하기만 하다. 이것은 노래나 신체표현에 자신이 없는 교사라면 더 큰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주게스토페디!!

이 이름도 생소한, 거기다 하루 10시간이라는 긴 교육에 참가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대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 때문이었다.

강의는 '주게스토페디'란 이름을 풀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암시교육, 그중에서도 긍정적 암시를 통한 통합예술 교육이 바로 주게스토페디였다. 대부분 이런 생소한 이름의 강의를 듣다보면(거기다 이름이 외국어로 되어 있다면 더)외국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끼워 맞춘 강의들이라 현장에서의 적용도 힘들고 배우면서도 힘겨운 경우가 많은데 이번 교육은 달랐다.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의 철학이 모국어를 통한 민족 음악교육이었고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에 불렀던 노래의 대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쉽게 접했던 전래동요들이었고 강사님이 민족정서를 담아 작곡하신 노래들이었다.

하늘천 따지, 별하나 나하나, 두껍아 두껍아, 여우야 등 제목만 듣고도 쉽게 흥얼거려지는 편안한 노래들이었기에 10시간이라는 긴 강의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다.(아마 배우기도 까다로운 새노래를 이렇게 장시간 불렀다면 그 부담감과 긴장감으로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미술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

래동요를 통해 몸과 마음으로 느낀 느낌은 다양한 소재를 통해 표현하는 것 그것이 미술교육의 주된 내용이었다. 주게스토페디는 언어와 음악, 미술 신체표현이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졌다. 별하나 나하나 노래를 부르면서





먼저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별을 상상해 본다. 무슨 색깔일까?, 크기는 얼마만할까?, 누가 살고 있을까? 등등.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마음대로 노래의 가사에 따라 몸으로 표현해 본다. 리듬악기로 장단에 딸 연주도 해 본다. 마지막으로 상상했던 마음의 별을 그림으로 그려 본다. 공동작품으로 함께 이야기하며 그려보기도 한다. 여우야 여우야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통해 상황을 상상해 본 후 노래를 부르며 몸과 리듬악기로 표현해보고 그 상황을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어 본다. 여우도 만들고 찾아온 친구들은 상상한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우와 달팽이 친구, 어울리듯 안 어울릴 듯 그러나 번뜩이는 상상력이 아닌가? 다른 모든 노래들이 그렇다. 노래가 노래에서 그치는 법이 없다. 끊임없이 상상해 보게 하고 표현해 보게 한다. 노래가사도 정해진 것을 고집하지 않는다. 모든 노래가사에 변형을 시도한다. 꼬마야 꼬마야 노래에 다양한 명령어를 넣어 여러가지 반응을 볼 수 있는 끼리를 제공한다. 자장자장 우리아기도 후렴부분 외의 노랫말을 아이들과 지어 부름으로 더 편안하고 친숙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여러가지로 응용가능한 것은 바로 전래동요의 특징이면서 주게스토페디에서 전래동요를 선택한 이유인 듯하다.

교육에서의 색다른 경험은 바로 작곡과 즉흥연주에 있었다.

간단한 기본형에서 다양하게 음을 변형시키는 방법 그리고 가사를 붙이는 것 신기하게도 간단한 기본형에서 다양하게 음을 변형시키는 방법 그리고 가사를 붙이는 것. 신기하게도 작곡은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다. 아이들 노래는 쉬운 음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기본형에 여러가지로 음을 조금만 변형하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교사도 만족스러운 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즉흥연주도 처음에는 리듬악기를 가지고 교사가 먼저 하면 아동이 듣고 따라 해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리를 집중해서 듣는 것, 이 단계가 지나면 각자가 리듬을 만들어 해보게 된다. 한사람이 먼저 치면 다른 사람이 받아서 치는 우리음악의 메기고 받는 대화가 있는 아름다운 연주가 이루어진다. 연주에서 주로 이용되는 것은 리듬악기와 리코오더이다. 특히 리코오더는 울림이 고르게 있는 악기로 아이들에게 들려주기에 좋은 악기였다. 닫혀진 공간에서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고운 소리를 만들어낸다. 특히 노래에 자신이 없는 교사들이 고음을 기피하여 모든 노래를 저음으로 부르게 되는데 리코오더를 통해 고음의 소리를 경험하게 해 주고 교사의 목소리를 수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참으로 신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교사에게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었다면 아이들에게도 신나는 놀이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교사의 시도가 가장 절실하다. 교육이 하나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교사의 끊임없는 수정과 고민을 바탕으로 한 연구 또한 절실하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에서 웃음이 그리고 재미가 담뿍 묻어나리라 기대된다.



한국보육교사회 여름연수를 다녀와서

안경아·인천, 새싹새싹둥이어린이집 교사

7월 25일 송실대 사회봉사관에서 한국보육교사회 '98여름연수가 있었다.

주제는 주게스토페디 통합예술교육 '여름나들이'를 주제로 한 유아음악교육의 통합적 접근이었고 주게스토페디 음악원장이신 박성순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다.

'주게스토페디 통합예술교육'은 그 나라의 언어나 그 나라의 절기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 종교, 역사의 흐름이 담겨있는 민속음악, 고전음악을 토대로 하여 언어와 음악, 미술과 음악, 연주와 음악, 춤/놀이 등과 음악이 잘 어우러진 전래음악에서 시작하여 그 특성에 맞게 통합적인 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음악적 능력(이해, 감상, 표현)은 5,6세 이전에 80~90% 이상이 결정되고 음악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유아음악교육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여름 연수분위기는 선생님들의 주게스토페디의 통합예술교육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진지하면서도 이론과 실기가 접목되어 생동감이 넘쳤다.

우리가 음악활동에 흔하게 이용하지 않는 리코더 불기는 6~7세 아이에게도 지도가 가능하여 아이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교구가 될 것 같았다.

밀가루 반죽은 공작활동에만 이용하지 않고 화선지나 도화지 등에 입체감을 사리고 재미있는 표현에 이용되는 좋은 소

재가 되었다. 박성순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 긍정적인 암시는 매우 중요하며, '듣기' 교육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셨다.

음악과 미술 통합교육의 한 실재를 소개해보면 <두껍아 두껍아>를 모래밭에서 한손으로 덮으면서 불러본다. 아이들의 소원을 말하고 소원을 모래밭에 그려본다. 이때 소원은 비밀스럽게 그리게하고, 그린 후 모래로 덮어 아무나 알 수 없게 한다. 다같이 둘러서서 춤을 추며 소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데 소원은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아이들과 노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말꼬리 이어 그리기>

상징적인 단어를 하나 먼저주고 아이들이 말꼬리를 이어 그림을 하나씩 그리게 한다. 그림이 완성된 후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노래에 맞춰 불러본다.

처음엔 이름도 생소하고 자연스럽게 발음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린 주게스토페디-암시적교육' 아직도 생소하고 조금은 낯설지만 상큼한 맛을 본 기분이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실기 내용이 처음엔 화와 닿지 않아서 우왕좌왕했지만 직접 실기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많은 교육이었던 것 같다.

비회원의 연수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토요일 실시되어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 연수였지만 새로운 교육적 제시였다는 면이 좋았다. 이런 새로운 내용의 연수 기회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

손현민 · 아동능력개발연구소(ICAD)교육연수실장

1 현대사회와 여가의 활용

80년대 이후 사회 전반적인 변화 중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질적 향상, 스트레스해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만큼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같은 목적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나 레크레이션 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신문, TV 등 각종 대중매체들도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소식을 앞다투어 다루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사람들만 이용하던 스포츠센터들이 동네마다 생겨나고 비용 또한 저렴해져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시설을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된 것이다. 여기에는 80년의 86아시안 게임, 88올림픽 등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 후 생활체육이라는 개념은 급속히 보급되었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건강과 체력의 저하 현상이 뚜렷해지고 성인병 혹은 문명병과 도시화로 인한 소외감에 당면한 현대인이 자칫 늘어나는 여가를 주체하지 못해 향락적으로 기울기 쉽다는 점을 생각할 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꼽는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서 생활체육에서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용어들의 개념을 간단히 알아보아 그것들이 가지는 본래 의미를 짚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여가(Leisure)

여가(餘暇)란 간단히 말하면 '노동의 후의 남은 시간'이라는 뜻이다. Leisure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Scola였다고 한다. Scola는 '배운다'는 것과 관계가 있는 의미로 영어의 School로 발전된다. 라틴어에서의 의미는 Licere라 하여 '허용된 활동, 자유롭게 된다'는 뜻을 갖는다. 결국 여가란 배운다, 허용된다는 자유성이 포함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요즈음 이른 아침이나 오후, 휴일에 공원 등 야외에 나가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접할 수 있다. 비교적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 축구 외에도 수영, 스키, 각종 경기장 등 직·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참여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우리는 생활체육이라고 한다.

◆ 레크레이션(Recreation)

레저나 바캉스에 대하여 레크레이션은 보다 상위개념이다. 레크레이션 활동은 목표하는 것을 실현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거나, 정신적, 정서적인 활동이든간에 정해져 있는 종류나 형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활동이 레크레이션 활동인가, 아닌가는 개인이 그 활동이 어떠한 태도나 상태에서 행하고,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된다.

◆ 스포츠(Sport)

일반적으로 국문으로 표기할 때는 스포츠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Sport와 Sports 두 가지로 표기한다. Sport란 관련된 지식, 기술, 가치, 용구 등을 의미할 때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Sports는 구체적인 종목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예를 들면 '스포츠 용품점'에 사용될 때는 Sport가 사용된다.

스포츠의 정의를 간단히 말하면 '조직화되고 경쟁적인 총체로서 신체활동'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운동종목을 즐길 때 '스포츠를 즐긴다.'라고 말 하지만 사실 스포츠에는 몇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 ① 허구성 : 일상 밖의 일을 의미
- ② 비생산성 : 물질적 보상이 없음
- ③ 규칙성 : 정해진 룰(rule)이 반드시 있음

④ 경쟁성 : 경쟁의 요소가 포함됨

⑤ 불예측성 : 승패를 확실히 알 수 없음

⑥ 자유성 : 자유로운 참여

◆ Sport for all

체육에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이 있다. 협의의 개념이란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여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학교체육을 말하며, 광의의 개념은 신체활동을 매개로 한 인간의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체조, 스포츠, 무용, 레크리에이션 등이 포함된다.'

아동은 성인이 되기까지 제도교육 내에서 배우고 성장한다. 체육이란 교과는 많은 시수를 차지하며 중요한 교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 과정의 종료가 체육 자체의 마감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한 광의적인 체육의 범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체육이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로서뿐 아니라 성인이 되어 운택한 삶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생동안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1975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공동체(E.C.)의 스포츠 담당 장관들이 모여 채택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스포츠 헌장'의 바탕이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미비한 학교체육과 엘리트 위주의 체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생활체육의 확산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이상으로 현대인에게 있어서 생활체육이 갖는 의미에 대해 알아 보았다. 중요한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건강증진, 삶의 질 개선, 스트레스해소 등 많은 이유로 신체활동을 선택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리 쉬운 길은 아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 많은 경우가 몇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활동참여에 실패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결국 중요한 수단 하나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활발한 참여를 위한 조건에는 대략 두 가지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는 신체활동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다. 이것은 단시일 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유아 및 아동기부터 신체활동에 대한 습관과 긍정적 경험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신체적 능력이다. 스포츠란 단순한 기본기능이 아닌 고도화된 신체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는 운동기본기술을 바탕으로 조합하고 분할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데 이것 역시 이미 신경이나 근육이 굳어진 후에는 힘들어지게 된다. 발로 공을 차거나 잡거나, 배트를 이용하여 공을 치고, 뛰거나 달려서 몸을 이동하는 기본 동작이 습득되지 않은 사람에게 스포츠란 고역일 뿐이고 인생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좋은 수단 하나를 잃는 것이 된다.



알림

21세기 사회복지 - 특수유아 조기교육 특수 유아교육지도자 전문과정[9월학기]

빛과 소금의 소리CBS에서는 급증하는 언어지체, 정서장애, 정신지체, 학습장애들의 발달지체와, 자폐아와 같은 장애아동을 지도 보육할 제12기 특수 유아교육 전문지도자를 양성합니다.

1. 지원자격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보육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
- *보육시설 운영자로서 특수장애아 통합교육을 병행하려는 사람
- *대학에서 유아교육,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이수한 사람
- *보육시설 운영자로서 특수장애아 통합교육을 병행하려는 사람
- *특수 장애아동의 부모로서 자녀의 조기교육을 지도하려는 사람
- *사회복지기관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교활동을 하려는 사람

2. 교육기간(2학기)주3일 / 月, 化, 水/아간 6:30-9:30

3. 교육과목 :

- 1학기 - 특수교육학/정신지체/자폐아교육/장애유아발달/개별화지도/장애아동사회성지도/감각사회성지도/감각통합 운동치료/사례발표/토의실무발표등
- 2학기 - 특수유아교육/장애아 언어교육/장애아언어교육/장애아 미술치료교육/행동수정/장애아부모교육/음악치료교육/교재개발지도/연구논문발표/현장실습등

4. 교수진 : 한기정/조정환/최태욱/김용한/이금진/원종례/김진아/박현희/김호연/강순구/김규성의

5. 제출서류 : 공규신청서/사진3매/자격증 사본(수료증 사본)

6. 개강 : 98.9.11(금)6:30(접수순 20명 마감)

7. 특기사항

- 특수교육 각 분야별 전문교수 직강 □ 연구과제 부여-졸업논문 제출
- 특수교육 이론과 1급실무를 실제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문지도
- 이수자에게 본원 인정 수료증서 수여-특수 1급 현장에 취업추천(복지관/조기 1급원)
- 보육시설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및 통합교육 병설가능(장애보육 시설비/인건비 지원)

■ 접수처 : 595-6005(2,3호선 교대 전철역 7번출구 3분거리)

유아미술 실리치료과정-접수중(9월 10일 木)

기독교 방송 부설 사회복지교육원



어린이와 건강

어린이의 손상과 교사의 처치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1. 어린이 안전사고

어린이는 특성상 사고를 당하거나 폭력, 학대에 노출되기 쉽고 일단 손상을 받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다 발하는 몇 가지 사고의 종류와 유형을 알아본다.

표- 손상과 관련된 어린이의 특성

육체적측면	· 골단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성장판에 손상을 입으면 영구적인 장애가 초래된다. · 신경계통의 성장 및 발달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신경독성 물질의 영향을 받기 쉽다. · 기타 다른 기관(소화기계, 신장계, 호흡기계)의 미성숙으로 독성 물질의 흡수가 증가하거나 배출이 지연된다. · 피부가 얇기 때문에 심한 화상을 입기 쉽고 화학물질의 흡수가 증가한다. · 몸에 비해 머리가 크기 때문에 머리 손상을 입기 쉽다. · 땀샘의 미발달로 열에 약하다. · 기도가 작기 때문에 질식할 위험이 크다. · 몸집이 작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고 힘이 없기 때문에 위험을 잘 피하지 못한다.
지적측면	· 지식과 경험의 부족 ·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 물체의 속도나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인지능력의 미발달 · 위험과 능력에 대한 판단의 결여
감정적측면	· 유아기의 정상적인 호기심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육체적, 지적, 감정적 능력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기 쉽고 폭력이나 학대에 노출되기 쉽다. 교사가 어린이의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시 처치,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어린이 안전사고와 학대(폭력)에 대해 알아본다.

(1) 어린이 교통사고

① 우리 나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징

- ▶ 학년별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52%인 579명이 국민학교 취학전 어린이로 구성되어 있다.
- ▶ 차종별로 분석해보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501명에 해당하는 42%가 화물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 지역별로는 지방의 치사율이 대도시보다 2.7배로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월별로는 3-4월인 개학기초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의 첨두치를 보이고 있다.
- ▶ 시간대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후 4-6시에 첨두를 보이고 있다.
- ▶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78%인 872명이 보행 어린이 사망자이고 특히 이들중 56%(489명)이 미취학 아동이다.
- ▶ 사고발생장소와 자기의 집과의 거리가 500미터 이내에서 어린이 보행자 사망자의 28%에 해당되는 240명이 사망하였다.

② 교통사고의 원인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개선방향

- ▶ 가장 문제시되는 집단은 보행중인 미취학 아동들이고 지역별로는 대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지방 어린이가 집중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 ▶ 운전자중에서도 화물차 운전자가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 ▶ 집주변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므로 어린이 안전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③ 차량탈출사고

차량탈출시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어린이가 자동차를 탈 때 소아용 안전의자에 앉지 않거나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고 앞좌석에 타는 것 등이 주요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6개월된 체중 8 Kg의 아이가 차안에서 50 km/h의 속도로 부딪힐 경우 약 350 kg의 하중을 받아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어린이 보호장구는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이나 사망을 50-70%정도 줄여줄 수 있다. 보호장구에는 안전의자와 안전띠가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고속도로 통행시 유소아의 경우 안전의자를 필수 사용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아이가 만 4세 혹은 몸무게가 18 kg 정도되면 허리 안전벨트를



착용시킬 수 있고 아이의 키가 140 cm 정도 되면 어깨 안전벨트를 착용시킬 수 있다.

④ 자전거사고

자전거에 의한 사고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또는 뒤에 타고 가다가 생기는 사고가 많으며 특히 뒤에 타고 갈 때에는 발이나 다리가 자전거 바퀴에 끼여들어 손상을 받게 된다.

(2) 익사

① 현황

- ▶ 익사는 1~19세까지에서 교통사고 다음으로 많은 사고사이다. 1994년도 익사 및 침수에 의한 사망자수는 2,349명으로 이중 1~19세까지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 ▶ 4세 전에는 욕조에서, 학동 전기에는 수영장에서 익사사고가 많다. 지역에 따라 집 주위의 시냇물, 못, 저수지나 우물 등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난다.

② 예방법

- ▶ 소아에서 가장 효과 있는 익사 예방방법은 어른의 보호이다. 수영을 할 때에는 꼭 경험있는 어른과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한다.
- ▶ 수영을 가르치는 것이 익사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만 3세 정도가 되면 물에서의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고 수영도 배울 수 있다. 수영장에서 아이들 여러 명을 모아 놓고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다.
- ▶ 부모나 교사가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조치술을 알고 있으면 물에 빠진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3) 화상

화상은 뜨거운 물, 증기나 물체에 의한 열탕화상(scalded burn)과 화염에 의한 화염화상(flame burn)이 있다. 그 중에서도 70~80%가 집 안이나 실내에서 일어난다.

① 열탕화상

뜨거운 물, 커피나 주전자에서 끓는 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화상은 주로 3~4세 이하에서 많이 발생한다. 물의 온도가 55℃ 이상이면 3도 화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② 화염화상

화염에 의한 화상은 뜨거운 물 등에 의한 화상보다 치명적이며 주로 10대에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 담뱃불, 난방 기구나 성냥불 등에 의한다. 화재 발생시는 연기나 유독가스로 인해 질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4세 이하에서 어른과 같이 연기나 유독가스를 흡입하면 어른에 비하여 사망률이 4배나 높다.

③ 화상의 예방법

- ▶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 보호하는 것이다. 어른 없이 아이들이 혼자만 뜨거운 물에 가까이 가지 않게 해야 하고 뜨거운 음식이나 그릇, 주방기기, 난로, 온수꼭지, 가스렌지 불꽃, 라디에이터, 성냥, 담배불 등에 항상 주의를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 ▶ 온수의 온도를 54.4℃ 이하로 맞춘다.
- ▶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유아는 가급적 안전한 위치에서 떨어져 놀게 한다.
- ▶ 화재시 비상탈출구를 알아야 하고 로프나 사다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평소에 알아둔다. 교사들이 서로 일을 분담하여 신고하는 사람, 어린이를 책임지는 사람 등을 정해놓는 것이 좋다. 소형소화기를 실내에 비치하고 그 작동법을 알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 ▶ 화상을 입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화상 부위를 찬물에 담그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중독

악이나 화학물질을 우발적으로 복용하여 사망하는 경우는 대개 1~4세에서 많다. 약에는 흔하게 아스피린이나 다른 해열제, 항히스타민제, 비타민제 등이 있을 수 있고 화학물질로는 소독약, 락스, 청결제 등이 있다. 독성식물, 휘발류, 납중독 등도 드물지만 중요한 중독의 원인이다.

아직 우리 나라는 중독사에서 유소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1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1%도 못 미친다. 그러나 우발적인 독성물질에 의한 중독은 유소아에서 흔히 예상될 수 있는 사고로 항상 주의를 요한다.

(5) 기타 사고

① 추락

우리 나라에서 많은 빈도를 보이는 우발 사고로, 주위 환경의 개선과 보호자와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및 보호 시설의 설치로 발생률이 감소되고 있으나 아직도 우발 사고의 많은 원인이 되고 있다. 추락 사고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줄어들어, 5~6세가 되면 급격히 감소한다.

② 찰상

찰상은 연령에 관계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원인도 다양하다. 폭행 등 외력에 의한



것이 가장 많고, 이 밖에도 날카로운 물건이나 유리에 베이거나 물에 맞거나, 놀이기구에 의해 다치는 등 다양하다.

③ 이물질 흡인 및 질식

동전, 단추, 구슬, 핀이나 생선뼈 등이 흔한 원인이고 2~3세 때 흔히 생긴다. 질식사는 유아에서 머리의 조절이 안되는 5개월 미만에서 주로 생기는데 아이를 엎드려 재울 때 생긴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혼자 내버려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어야 하고 너무 폭신한 이불에 아이를 엎드려 눕혀 재우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참고1> 각 연령에 따른 소아 안전사고의 예방 대책

표-각 연령에 따른 소아 안전사고의 예방 대책

연령	운동기능의 발달	사고의 종류	예방 대책
1세 미만	4개월: 물건을 손으로 잡으려 한다. 5개월: 두 손으로 물건을 잘 쥐며 아무 것이나 입에 넣는다. 6-7개월: 뒤집는다. 10개월: 잡고 선다. 12개월: 혼자 선다.	질식, 추락, 중독, 이물질흡입, 화상, 익수사고	- 너무 폭신한 베게나 요를 사용하지 않는다. - 침대 옆에 난간을 설치하며, 높은 곳에 혼자 두지 않는다. - 비닐 봉지, 끈이 뿔뿔하거나 조그만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기 쉬운 장난감, 동전, 껌이나 콩을 치워 둔다. - 물이 담긴 그릇, 뜨거운 음식, 전열기 등의 근처에 혼자 두지 않는다. - 자동차에 태울 때 유아용 의자를 사용한다. - 구조재를 상비약으로 준비해 둔다.
1세	15개월: 혼자 걷는다. 계단을 기어 올라간다. 18개월: 서랍을 연다.	중독, 추락, 익수사고, 교통사고, 화상, 이물질흡입, 질식, 외상	- 약품, 독성 물질, 동전, 핀, 구슬 등을 치운다. - 창문에는 창살을 설치하고 꼭 잠근다. - 실내에서 놀도록 하며, 실외로 나갈 경우 주의 깊게 관찰한다. - 난로 위에 있는 주전자나 프라이팬의 손잡이를 손에 닿지 않게 하고, 뜨거운 음식 그릇을 식탁 가장자리에 놓지 않는다. - 갑자기 떨어져 내릴 수 있는 장난감 상자를 치운다. - 목욕탕이나 수영장엔 혼자 두지 않는다. - 자동차에 태울 때는 유아용 의자를 사용한다.
2~3세	호기심이 많다. 계단을 오른다. 세발 자전거를 탈 수 있다.	교통사고, 추락, 익수사고, 화상, 중독, 외상	- 길에서 자동차를 주의하라고 가르친다. - 큰 길로 굴러가는 공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가르친다. - 모든 화기는 잠가 두고, 가스 레인지는 벽에 붙어 있는 밸브까지 잠근다. - 과도, 전열 기구, 약품, 성냥, 동전, 핀, 구슬 등은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치운다.



연령	운동기능의 발달	사고의 종류	예방 대책
5~9세	대담하고 모험적이다 아이들과 경쟁적 놀이를 한다.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익수사고, 외상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법을 가르친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헬멧을 쓰도록 한다. 교통 법규를 가르친다. 자동차 안전 벨트 매는 법을 가르친다. 수영을 배워 준다. 성냥 사용 방법을 가르쳐 준다.

<참고 2> 안전점검 항목

어린이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자를 일일이 만나고 상담하는 것은 비효율적
이므로 다음과 같은 체크 항목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표-안전점검 항목

자전거	▶ 브레이크는 제대로 작동하는가? ▶ 체인 보호덮개는 온전하고 나사나 볼트는 헐겁지 않은가? ▶ 전면, 후면, 패달, 경보기에 반사장치가 있고, 전조등 미등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계단, 경사지, 언덕	▶ 희미한 조명은 고쳐라 ▶ 난간이나 부서진 계단은 점검하라 ▶ 양탄자 등 바닥깔개가 떨어진 경우 수선을 하고 사람 다니는 길에 놓여 있는 물건은 치울 것
집안에서 아이들이 노는 공간	▶ 운동시설은 바닥이 딱딱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고 벽이나 담장으로부터 적어도 2m 이상 떨어질 것 ▶ 운동기구 바닥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하고 나사나 볼트는 플라스틱 보호덮개로 감싸야 함
욕조	▶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할 것 ▶ 목욕탕의 깔개나 매트 미끄러짐 방지가 되어야 한다.
사다리	▶ 미끄럼 방지용 고무 혹은 플라스틱을 사다리의 밑과 각 단에 설치 ▶ 사다리의 각 단은 튼튼한지 확인하고 균열이 없는지 확인하며 지주목은 안전한지 점검
전기 코드 및 인출선	▶ 전기소켓 하나에 플러그는 하나씩 사용한다. ▶ 플러그를 보호하는 캡이나 회색식 인출선 보호캡을 사용하지 않는 소켓에 설치한다. ▶ 닳은 코드, 노출된 선, 헐거워진 플러그를 수선할 것 ▶ 퓨즈의 용량을 정확히 맞출 것



가구	▶ 가구는 전열기, 히트, 난로 등과 떨어져 배치할 것 ▶ 사람이 지나다니다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곳에는 가구를 배치하지 말 것
유리문, 유리창	▶ 유리 모서리가 안전하게 끼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어른이나 아이들 눈높이에 무너져나 깨진 유리 조각이 있는 테이프를 붙여 눈에 떨어뜨릴 수 있게 할 것
액체성 연료	▶ 휘발성 액체는 인식표가 반드시 붙어 있고 마개를 꼭 막아야 하고 유리 이외의 용기에 보관하고 불이나 불꽃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화재시 안전	▶ 연기탈지기를 설치하고 불이 났을 때 조기 경보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해야한다. ▶ 화재시 대피 및 소방 계획을 세우고 연습을 할 것

(6) 여러 가지 응급상황과 응급처치

2. 아동학대 및 폭력

국민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987. 김광일 고복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매맞은 경험이 있는 아동이 66.2%, 그중에서도 그중에 1년동안 12번 이상 심하게 매를 맞은 아동이 8.2%로 나타났다. 한편 1993년 전국 17개 시도와 부모 및 아동 3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체적 학대의 조사결과에서 보면(1993. 이배근) 86.9%의 부모가 자녀구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얼굴을 비롯한 신체 각 부위의 타박상이 90%이상을 차지하며 안구와 고막파열, 화상, 골절, 내장파열 등 구타로 인한 신체적 불구도 있으며 심지는 사망하기도 한다. 더욱이 폭력을 당하는 아동들은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10%가 사망, 1/3이 정신지체, 70% 이상의 아동이 지능부족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교사의 의견

매?...!...?...

임미란 · 부천, 동그라미놀이방 교사

나는 30여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매를 맞아보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매를 쓸 수도 있는 힘과 나이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오늘 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며 맞았던 많은 매들을 풀이켜 보며 매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함께 느껴보고자 한다.

나의 고향은 피끓는 남도의 끝자락이다.
7살쯤 됐을까나는 엄마에게 매를 맞았다. 미운 7살이라고 무지하게 말을 안들었고 그나마 엄마가 매를 들려고 하면 다람쥐처럼 쏘르르 도망을 가버렸다
어느 날인가, 이유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아마도 책임이 주어진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날도 실컷 놀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가 웃으시며 나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는 것이 아닌가
어린 나는 엄마의 그 화려한 미소에 속아 엄마에게 뽀뽀 달려갔다가 역시 엄마에게 확실하게 잡혀서 '그래 걸려들었구나' 하고 나의 엉덩이는 불이 나고 어린 나는 어떻게 안맞아 불려고 엄마뒤로 숨고 엄마는 제대로 때려주기 위해 아이를 앞으로 세울려 하는 그 치열함...
그때를 맞으면서도 나는 엄마의 뒤로 숨고, 품으로 더욱 안겨들면서 엄마의 냄새를 맡았다

익숙하고 포근한 엄마의 변함없는 냄새
그렇게 맞아도 어린 나는 엄마를 부르고 엄마가 정말 좋았다.

그당시 국민학교라 불리던 곳 2학년 교실에서 나는 무척 많이 맞았다.
다행히 그 선생님 성함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걸 매로 다스리는 그런 여선생님이였다
2학년 2학기가 끝나고 마지막 수업시간에 그 선생님은 진지하게
"애들아, 너희들을 너무 많이 때려서 미안하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역시 어렸던 나는 그 선생님을 비웃었다.

국민학교 4학년때 나는 구구단을 못 외워 교실에 남아서 나머지 구구단을 외워야 했다

나중에 돌아오신 키가 큰 남자 담임선생님이 구구단을 다시 외워보게 했다
물론 뒷단위 구구단을 못 외워 약속대로 자로 손바닥을 맞아야 했다.
그 선생님은 실실 웃으며

“아, 그게 그렇게 안되나?”

하며 별로 아프지도 않게 손바닥을 때렸다.

나는 그 선생님이 정말 좋았다.

매가 안 아파서가 아니라 그냥 그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와서 그냥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다.

우리집안은 딸만 드글드글한 귀남이네집이다.

귀한 우리 오빠는 일찍이 도시로 유학을 가서 우리와는 사뭇 다른 특혜를 받으며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에 다닐때였나보다.

오빠는 대학생이라 일찍 시골로 내려오고 나는 그날까지 내야하는 방학책값을 못내서 속으로 안절부절못하고 있다가 더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그날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

역시 돈이 없다는 대답에 나는 울분을 토하며 울고 불고 가고 있는데 나는 느닷없는 고무신 세례를 받았다

갑자기 무슨 일이나고?

잘 나가는 우리 오빠가 뒤에 따라오다가 없는 돈이 나오지도 않는데 동네 청피하게 울고 불고 한다고 뒤에서 신고 있던 고무신을 벗어서 그냥 정신없이 패버린 것이다.

그때 지나가던 동네 주정뱅이 아저씨가 말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디 질름발이가 됐든가 이세상사람이 아니 었을지도 모른다.

그뒤에 진지한 오빠의 사과를 받았지만 나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고 오빠가 밉다.

내가 고2였을 때 나는 심한 사춘기였다.

모든 인생의 고뇌를 혼자 떠 앉고 고뇌하며 해방구를 찾지 못해 여러 가지 돌출행위를 하던 시기였다.

어느날 나는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선생님이기에 그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날 좀 때려달라고, 마음이 괴롭고 공부도 안되고 내모든게 뺑구가 난거같아 어찌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다.

그분은 그게 꼭 맞아야만 정신을 차리겠냐고 피로워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내마음을 헤아려 자로 손바닥을 맞기 시작한 게 한 50대 이상 맞은 것 같다.

그때에야 나는 비로써 교실로 돌아오며 가슴의 응어리를 풀고 웃을 수 있었다.
나는 그 선생님이 정말 좋다.

나의 치부를 알고 이해해 주는 그 마음과 그래도 연필 잡을 수 있는 손바닥은 빼고 때려 주신 그분은 항상 내가슴에 남아있다.

너무 많이 맞았나?

이제 마지막

내가 잘 나가는 노동조합의 사무장을 할 때 갈 때까지 간 노사관계는 급기야 여자 조합원들을

지하 식당에 가둬 때리고 발로차고 목숨걸고 나가려 하는 조합원들에게 분말소화기를 뿌리는 것이었다.

정말 무서웠다.

힘센 남자들의 폭력

결국 그 무자비한 폭력은 조합원들의 튼튼한 단결력으로 이어져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싸울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오늘 내가 지지분한 나의 취미인 화장실에 앉아 생각하기를 하다가 문득 매란 무엇 일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매란 때릴 수 있는 거나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나의 논쟁을 떠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경적인 여러 조건들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매란 어떤 과정속에서 맞느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맞는 사람과의 인간적인 신뢰감이 있느냐는 기본적인 문제와

맞는 사람이 자신이 맞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느냐는 타당성의 문제

그리고 때리는 사람이 마음에 어떤걸 품고 때렸느냐는 것들에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영향을 미치는 그것들이라는 것이다.

이제 그후로는 아직까지 한번도 맞아보지 못하고 대신 우리 하나있는 귀한 딸아이의 4살 사춘기를 맞아 참다참다 못해 엉덩이를 한대 때려 주고는 무지하게 속상해하며 이 '매'란 무엇인가 하는 결코 정답이 나올 것 같지않은 기나긴 화두에 휩싸인다.

‘포구나무의 밤’을 마치고...

김영수 · 부산, 포구나무어린이집 교사



연 제 : 1998년 6월 19일(금)~20일(토)

누 가 : 해바라기반(초등반)3명, 민들레반(6~7세반)10명,

진달래반(4~5세반)10명, 개나리반(4세)7명, 교사4명

어디서 : 포구나무 어린이집

기 록 : 김영수

* 실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

시 간	활동내용	준비물
6월19일 금요일 늦은 4:00~ 4:30 5:00~ 6:30 6:30~ 9:20 9:20~10:00 10:30~11:00 11:00~	야호! 맛있겠다(오후간식) 모두 모여라!(모듬활동-반별인형극 또는 동극발표) 포구나무 탐험대출동!(야간산행, 산에서 보물찾기 엄마들이 만들어주신 저녁식사 사람을 느껴요(부모님 편지읽기) 옛날이야기를 들으며 꿈속나라로....	랜턴, 빵, 보물, 물 부모님 편지
6월 20일 토요일 이른 7:00 8:30~9:00 9:00~ 늦은 2:00	일어나요 이맛이 꿀맛이다!(아침식사) 포구나무의 일상생활로 학부모회의	

* 우천시 야간산행이 불가능할 것을 대비하여 마련한 프로그램

- 집안에서 불을 끄고 랜턴 들고 보물찾기/ 촛불의식/ 집안에서 숭바꼭질

* 계획했었는데 하지 못한 프로그램

- 밤참 먹기/아침체조

* 준비과정에서 나왔던 그 밖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안

- 요리활동/ 대중목욕탕 가기/ 바깥놀이터에서 보물찾기

편집자주 : 부산지부 관찰일기 소모임이 잘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모임에서 나온 관찰일기를 계속해서 연재합니다. 독자들의 애정어린 관심부탁드립니다.

-부산 관찰일기소모임 목차-

1. 김영수교사의 아동관찰일기
2. 나선임교사의 현장연구일기
3. 아동관찰 - 낮잠

4. 어린이집에서의 일박보육 관찰일기

하루전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때문에 행사를 계속할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우천시의 프로그램을 대충마련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일 정말 비가 왔다. 하지만 오전을 넘기고 오후가 되면서 비가 그치기 시작했고 오후가 되면서 비가 그치기 시작했고 오후 늦게는 가끔씩 햇빛도 비추었다(너무 기뻐서 아이들과 함께 '♪비야 비야 오자마자 대포산에 놀러간다'와 '♪해야 해야 잠꾸러기 해야 이제 그만 나오렴'을 부르며 비가 오지 말고 해가 나오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꿨던가...)우천시를 대비하여 프로그램도 고민해두었지만, 산행뿐 아니라 바깥을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나 교사들에게나 다 전달 수 없는 고통(?)이었다. 날씨가 개인 것이 정말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

오후 간식을 먹고 잠시 후에 뒷방에 다들 모여서 '포구나무의 밤'행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감을 다함께 선포하고 다시 각 방으로 내려와 모듬활동을 위해 인형극과 동극을 준비했다.

개나리반은 '커다란 무'라는 동극을 했는데 교사가 앞에 서서 "영차, 영차"하고 무를 뽑으면서 아이들 한명씩을 부르며

00야 00가 무 뽑는 걸 좀 도와줘!"하면 그 아이가 뛰어나와 앞사람의 허리를 잡으며 다같이 "영차 영차"하면서 무뽑기를 하는 거였다. 개나리반 아이들 전부 눈을 반짝이며 자기의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대견스러웠는지....

진달래반과 민들레반, 해바라기반은 '꼬마 삼보의 모험'과 '팍속나라 도깨비', '태양과 바람'이라는 막대인형극을 했다. 교사가 극의 내용을 진행시키고 가림막 뒤에 앉아 있던 아이들은 한명씩 자신이 맡은 역할의 순서가 돌아오면 직접 그린 막대인형(그림을 그린 후 가위로 오려 그 뒤에 나무 젓가락을 붙임)을 가림막 위로 내 보이면서 나름대로(?)의 대사(???)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모두들 담임선생님이 너무 뿌듯해 할만큼 잘해내었다. 물론 자기 순서도 아닌데 벌떡벌떡 일어나는 아이들, 뒤에서 가림막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아이들, 자기들끼리 논다고 순서가 되어도 나오지 않아 선생님이 낮은 소리로 "00야 얼른 해라"고 재촉을 해도 모르고 노는 아이들 등등 여러가지 사건사고(?)도 많았지만 「포구나무극단」의 공연은 아주 성황리(?)에 끝이 났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야간산행을 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어둠을 밝힐 랜턴, 우리배의 출출함을 달래줄 간식꺼리, 사진기 등을 챙겨 들고 언제나처럼 큰 아이들과 작은 아이들이 작을 짓는 것으로 준비를 끝내고 대포산을 향했다.

평소 대포산행보다 더욱 신이난 아이들은 대포산 입구에 다다르자 완전한 「무적 포구나무 탐험대」가 되어서 비온 뒤의 미끄러운 산길도 서로 앞다투어 잘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몇몇의 아이들은 긴 나무가지를 주워서 한손에 쥐고 돌격대장처럼 산을 누웠고, 또 몇몇의 아이들은 풀이며 돌멩이며 작은 것들에 관심을 보이며 조금 천천히 산을 올랐다.

그렇게 우리는 대포산 체육공원에 도착했다. 체육공원에서 잠깐의 휴식시간(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휴식이란 체육공원의 운동기구들에 이렇게 저렇게 도전해 보며 노는 것이었다)을 가지고, 맛있는 빵으로 간식을 먹고, 탐 앞에 모여서 노래도 몇 곡 부르고 다시 대포산 정상을 향해 출발했다.

대포산정상에 도착하니 해는 벌써 떨어지고 어둠이 어둑어둑 내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멋지게 내려다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구경하는 동안 선생님은 열심히 보물쪽지를 숨겼고 잠시후 '출동!' 하는 모두의 함성과 함께 깜깜해진 앞을 랜턴으로 밝히면서, 보물찾기가 시작되었다.

보물쪽지는 찾았는데 쪽지에 적혀있는 '지렁이'를 찾지 못해 이곳저곳을 헤매이는 준현이, 보물을 찾으라고 했더니 선생님의 랜턴과 배낭을 찾았다고 들고 나타나는 성래, 보물찾기에는 관심이 없고 여

기저기 땅을 파며 돌아다니는 근화, 보물을 하나도 못 찾았다고 안달하는 창현이, 열심히 형들의 뒤를 쫓아다니며 보물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승혁이, 개미를 찾으라는 쪽지를 들고 그 깜깜한 산에서 어떻게 찾았는지 왕개미를 찾아서 나타난 준영이, 아무것도 찾지 못한 개나리반 아이들은 무조건 사탕을 달라고 선생님에게 붙어 서서 아우성을 치고, 쪽지의 지시대로 술방울, 동그란 풀잎, 길쭉한 풀잎, 조그만 벌레등을 찾아서 뿌듯해하며 나타난 아이들...(그 뒤에 전해져 오는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 소문 몇가지-지렁이를 찾지 못한 준현이는 선생님에게 돌멩이를 찾으면 안되냐고 때를 썼다고 하고, 보물을 찾지 않은 개나리반 아이들이 사탕을 제일 많이 먹었다고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보물을 대신 찾아주기도 했다는 등등의 소문이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보낸 보물찾기시간을 마치고 그때부터 이번 야간산행의 제일 난코스인 하산을 시작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아이들은 정상보다 점점더 깜깜해지는 산속의 어둠을 랜턴으로 밝히며 큰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을 돕고, 작은 아이들은 큰 아이들을 의지하면서 너무 너무 씩씩하게 산을 내려왔다. 내려오면서 '산도깨비' 노래도 부르고, 개구리 소리도 듣고, 뱀만한 왕지렁이도 보고...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정말 신기하고도 즐거운 하산시간이었다.

약간 길어진 산행으로 어린이집에서 저녁준비를 하던 엄마들이 걱정이 되어 산 입구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다. 엄마들의 마중을 받으며 어린이집으로 가는 골목길에서 가로등 불빛에 길어진 그림자 구경

으로 우리는 약간 출출한 배를 달래며 어린이집에 도착했다.

어린이집에 도착하니 시간이 벌써 9시를 훨씬 넘기고 있었다. 온통 땀이며 진흙이며 엉망이 된 몸을 씻고 맛있는 돈까스로 저녁을 먹고 모두들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부자리도 뒀지만 제법 피곤할법한 아이들은 이방저방을 뛰어다니며 흥분을 가라앉힐 줄을 몰랐다) 옛날 수학여행을 떠났을 때 평소에는 그렇게도 오던 잠이 달아나버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밤샘을 하던....아이들도 그런 마음이었을까???)

10시 30분쯤이 되어서야 겨우 아이들이 모두 자리에 누웠다. 그때부터 담임선생님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의 편지를 들고 아이들 한명 한명의 옆에 가서 읽어주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편지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던 개나리반 아이들도 선생님이 읽어주는 편지를 들으면서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지 눈빛이 사뭇 진지해지는 것이 기록하기만

했고, 진달래반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진지하게 들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사건(?)은 민들래반과 해바라기반에서 터졌다. 엄마 편지의 첫줄을 읽자마자 끼이끼이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게 우는 준영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우는 다예, 다예옆에 누워있던 지선이와 예신이도 덩달아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울먹했던 것이다. 그렇게 편지를 읽어주는 동안 먼저 잠이 드는 아이는 잠이 들었고, 편지를 다 읽어주고 나서 불을 끄고 선생님의 다독임 속에 아이들은 하나 둘씩 깊은 꿈나라로 빠져 들어갔다.

'우리아이들이 잘해낼까', '울지는 않을까', '엄마를 찾지는 않을까' 등등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걱정을 무색하게 한 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포구나무아래서의 깊어 가는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참! 그리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그날밤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에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따로 모였다는데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생각하는 힘, 탐구하는 힘

김실이 · 경기, 안산어린이집 교사

햇 별이 쾅쾅한 5월의 오후. "오늘 실험은 마당에서 할 거야."하는 선생님의 말에 "왜요?", "더운데요."교사를 따라 마당으로 나오며 벌써부터 질문이 쏟아진다.

"응, 오늘은 색깔 그림자 실험인데, 그림자가 있으려면 햇빛이 필요하거든"교사가 하얀 전지를 바닥에 깔자 "이건 왜 퍼

요?"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와---"하며 종이 위로 납작 올라 앉아버리는 아이들도 있다.

"글쎄, 이걸 왜 뿔을까?"하며 선생님이 손을 꼭 펴서 전지 위에 그림자를 만들자 "그림자다!"하는 소리가 뛰어나온다. 물론 한편에선 "선생님 손에 뭐가 있나"하며 고개를 빼고 손만 쳐다보는 아이들도 있지만...

선생님이 독수리 그림자를 만들자 "와, 독수리다...나비다...! 나도 만들 수 있어요"하며 저마다 손그림자를 만들어 본다.

"애들아, 그런데 그림자는 무슨 색깔이냐"하자 "검정색이요"하는 씩씩한 대답이 들려온다. "그래, 그런데 왜 검정색 그림자가 생길까" 오고가는 질문과 대답들...

이제 실험은 중반에 접어들어 파란 셀로판지 그림자와 빨간 셀로판지 그림자를 겹쳐서 보라색 그림자를 만드는 순서.

"애들아, 선생님이 이 두 종이를 겹치면 어떻게 될까?"

"보라색이 되요", "합체예요", "빨강색이 되요", "아이, 빨리 해봐요"등의 다양한 목소리들.

"그래, 그래. 너희들이 하나, 둘, 셋 해줘. 선생님이 겹쳐볼게."

아이들이 하나, 둘, 셋 하는 합성과 함께 흰종이 위에 나타나는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보라색 그림자.

"검정색이에요."하고 외치는 순진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지만, 분명 보라색이 되어야 하는데 검은 색인 것에 놀라(거의 실망에 가깝다)할 말을 잃은 아이도 있다.

"그래, 그림자는 좀 까맣게 보이는데 셀로판지는 무슨색이 되었는지 한 번 눈에 대어보자"하는 교사의 말에 겹쳐진 셀로

판지를 눈에 대어보고는 "보라색이요"하며 이제야 안심이다.

"그런데요, 햇님은 노랗게 보여요", "썬 그라스 같아요", "온세상이 보라색이에요"하더니 "우리 종이 모두 합해서 봐봐요"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교사가 준비한 마지막 실험까지 맞춘 것이다. 똑똑한 녀석들 교사는 이럴때 신나지 않을 수 없다.

과학실험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모든 아이들이 골고루 대답을 잘한다는 것을 느낀다.

예측이나 관찰의 과정에는 정답이 없고,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른 우리 아이들처럼, 아름다운 생각과 반응들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 대답을 잘 안한들 어떠하랴, 눈앞에 펼쳐진 보라빛 세상에 심취해서 선생님의 질문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일수록 이런 실험의 과정이 더욱 깊게 각인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린 반일수록, 실험은 간단하고 흥미 위주로 진행된다. 파란 셀로판지의 그림자에 손을 대보고 파랗게 변한 손을 보고 즐거워하는 아이들...

누가 그랬다. 아이들은 모두 타고난 과학자라고...어른들이 보기엔 단순한 실험 결과에 까르르 웃음이 터지고, 교사가 예상치 못한 논리적이고 기발한 대답을 하는 아이들...

2주에 한번 진행되는 짧은 실험이지만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 주위를 탐구하고 즐길 줄 아는 힘이 자라는 것을 느끼며, 교사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을 발견한다.

신나는 여름캠프 모음

편집자주 : 여름의 어린이집 추억은 역시 캠프이겠조. 많은 어린이집이 올여름에도 여름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각 시설의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다녀온 캠프를 모으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 진주 들꽃어린이집으로 다녀온 부산의 아기자람터, 여주 꽃동산 캠프장으로 인천의 예술.밝음.햇살어린이집, 대천바다를 여행한 서울 동근나리어린이집의 캠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를 가나 그저 즐거운가 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들의 표정이 살아옵니다.

아기자람터의 한여름 추억

김효정 · 부산, 아기자람터 교사

반 복되는 듯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자연으로의 여행은 어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설레임을 충분히 가져다주는 일이다. 자람터에서 이런 설레임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여행을 떠났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진주 들꽃어린이집에서 1박2일 동안 한여름의 추억을 만들고 돌아 온 것이다.

엄마, 아빠의 품속을 떠나 처음으로 낯선 환경에서 하룻밤을 묶는다는 것이 선생님들도 약간은 긴장되었지만 무엇보다 엄마들의 걱정, 불안은 잘 펼쳐지지 않나 보다. 하지만 이번 여행의 주인공인 아이들은 어른들의 걱정과는 무관하게 연신 조잘조잘, 재잘재잘거리며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1달 전부터 1박 보육에 대한 환상을 풀어준 탓도 있겠지만...) 아무튼 8월1일 결전의 날을 다가왔고 제일 어린 유미(19개월)를 포함해서 11명의 자람터 개구쟁이들과 실직상태(?)인 장정숙

선생님,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진 현진이 삼촌, 그의 다정한 친구 지호삼촌, 그리고 자람터의 든든한 터줏대감 3명의 교사들이 들꽃 어린이집으로 출발하였다.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농촌의 풍경을 감상하며 가릴 은근히 바빴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119구조대차, 경찰차, 견인차, 비행기등... 이런 물체(?)에 더 흥미를 가졌고 희미해지던 눈이 동그아졌다. 멀미기가 보이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재원이가 뜻밖의 재롱('나는 나는 저팔계, 왜 나를 싫어하나! 나는 나는 미스코리아, 왜 나는 윤재원')을 피워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들꽃어린이집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재원을 오락부장 불렀다네...

도착하니 들꽃선생님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고 곧 바로 점심준비를 하였다. 점심준비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내 집인 양 볼풀장에 뛰어 들어가고 방방마다 있는 장난감을 다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무서운 아이들이야!)

서둘러 점심을 먹은 후 날씨 사정상 내일 하기로 한 물놀이를 오늘 하기로 했

다. 차로 20분 정도 가니 아이들이 놀기에 적당한 계곡이 나타났다. 물을 보는 순간 정신 못 차리는 아그들!!!

‘와, 물이다’라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잠시 잠이 들었던 아이들이 용수철처럼 펴떡 일어나는 것이다. 아이들이 재촉에 쫓겨 자리를 잡기도 전에 튜브에 바람을 넣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기 바빴다. 먼저 5살 남자아이들이 용감하게 물 속으로 침범침범 들어가자 여자 아이들은 선생님의 손을 잡고 조금은 여린척(자라터에는 공주병에 걸린 여자아이들이 제법 있다)조심스럽게 들어갔다.

튜브에 몸을 실고 한참 물장구를 치는 개구장이들, 물속관찰통(연꽃선생님이 일본 물레 자연학교 연수때 사온 것)으로 물고기를 찾기 위해 바닥을 훑어저라 쳐다보는 아이들, 선생님, 삼촌들한테 장난끼가 발동해서 물세례를 즐기는 악동들, 물속에 있는 돌맹이를 주워 여러가지 모양의 이름을 대는 학구파 아이들.

이렇게 정신없이 노는데 사건 하나가 발생하였다. 26개월 된 민균이의 얼굴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작은 것도 아닌 큰 것(?)을 물속에서 눈 것이다. 이미 때는 늦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아호 무사히 흘러가길 바랄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더 놀고 싶어요’하는 민지를 겨우 설득시켜 돌아왔다. 오는 길에 식물원, 동물원에 들렀다. 온실 속의 식물원은 너무 늦어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위만 구경했는데 그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알찬 시간을 보냈다. 관리를 잘해 놓은 탓으로 우리는 여러 다양한 나무, 꽃, 곤충들을 보고 만질 수 있었다. 처음 보는 곤충, 나무, 꽃



을 보고 질문을 하는 아이들에게 다행히 꽃말이 있으면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자리에서 대답 못해 준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도감 책자를 준비 못한 아쉬움이 들었다.

동물원도 관람시간이 지났는데 관리하는 아저씨의 배려로 한바퀴 돌고 나올 수 있었다. 풀을 뜯어 꽃사슴한테 직접 먹이를 줬는데 무서워하면서도 ‘나도 즐겨요’하며 오글오글 모여있는 아이들이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들꽃어린이집으로 돌아와 목욕도 뒀전으로 하고 저녁을 먹은 후 오늘의 마지막 놀이, 불놀이(캠프파이어)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얼굴에 그림을 그려주었다. 아참! 그전에 들꽃선생님(우리밀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손가락에 예쁘게 물을 들어주셨다. 탭으로 쓴 봉숭아꽃이 떨어질까봐 두손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귀엽고 천진스러웠다(그 덕에 선생님들도 열 손가락에 붉은 물을 들일 수 있었다) 불놀이에 대한 잔뜩 기대를 갖고 밖으로 나가자 삼촌들이 나무, 석, 풀을 구해와서 불을 붙이고 열심히 었다. 그런데 비가와 나무, 풀이 축축해 불이 잘 붙지 않았다. 겨우 불을 붙이고 우리는 그 주위에

모여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이랑 별을 보면서 행복감에 젖어들었다(자라터는 너무 고상하고 시적이야!) 하지만 불놀이의 최고 절정은 불에 구운 군고구마였다. 아이들이 관심은 불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에 집중되어 있었고 고구마가 잘 익지 않자 아이들은 애타하며 엉덩이를 치켜들고 머리를 땅에 박은 채 불 속을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았다. 드디어 삼촌들이 막대로 고구마를 꺼내자 서로 먹으려고 달려드는 아이들.

제비처럼 입을 벌리고 선생님 곁을 벗어나지 못하는 유미, 민균이, 한입이라도 더 먹기 위해 괜히 아양을 떠는 딸기반 여자아이들, 실컷 먹고도 시침이 푹 떴어 안 먹었다는 한얼이, 손.입.가.가 시커멓게 될지언정 먹고 보자는 대찬, 현진이,..... 이런 통에 선생님들은 군침만 삼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첫날의 하루 일정이 끝나고 잠자리에 눕자 시계는 거의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눈이 희미해져 가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정성스럽게 적어주신 편지를 읽어주었다. 그런데 진작 감동 받아야 할 아이들은 잠에 취해서 시큰둥하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감동을 받아 묘한 기분이 들었다. 얼마를 찾으며 우는 아이들 없이 11명의 자라터 꼬맹이들은 편안하게 꿈나라로 갔다.

새벽에 몸부림치는 아이들과 오줌을 누고 싶어 갑자기 우는 아이들 때문에 선생님들은 밤잠을 설쳤고 엄마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몸으로 체험하였다.

“동근해가 났습니다.~”7시30부터 기상한 아이들은 세수하고 양치질한다고 야단법석 이었다.

빠질 수 없는 맛있는 아침밥을 먹고 10시에 야생동물사육장으로 출발하였다. 잡자리채, 곤충관찰돋보기, 관찰상자, 간식을 준비한 우리는 본격적으로 놀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자 곧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이것이 바로 그 무시무시한 게릴라성 폭우로구나 오, 무심한 하늘님!)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날씨가 더 나빠지기 전에 서둘러 짐을 챙겨 부산으로 가기로 하였다. 그바람에 뒷정리를 못하고 와서 들꽃 선생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진주를 벗어나 부산에 다다르자 장난같이 날씨가 너무 좋은 것이다. 이대로 자라터에 가기에는 너무 섭섭해서 다대포해수욕장으로 차를 돌렸다. 방으로 간단히 점심을 때우고 갯벌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맨발로 게, 피조개, 물고기 등을 잡느라 옷과 손발이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죽어서 버린 피조개를 들고 와서 자기가 잡았다고 자랑하는 아이들은 흥분하였고 진흙의 감촉을 느끼며 여러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접하게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느껴졌다.



가지 않으려는 아이들을 겨우 달래서 차에 태웠는데 결국에 민균이는 울음을 터트렸고 선생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차에 태워졌다. 이렇게 자랴터의 화려한 1박2일 동안의 여행은 여기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1박 보육의 주제로 잡은 '자연과 한몸이 되자'처럼 물, 불, 흙 그리고 여러 살아있는 자연속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아이들 가슴가슴마다 한여름의 추억으로 오래오래 간직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편히 쉴 수 있었던 공간을 마련해 주신 들꽃선생님(아이들과 자랴터에 꼭 놀러오세요!)들과 이번 여행으로 더위를 먹은 장정숙선생님, 이틀동안 운전해준 현진이삼촌, 아이들과 잘 어울려 준 지호삼촌 모두 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없이 선생님을 믿고 1박2일 동안 여행을 한 아기자랴터 아그들아~선생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대이....

밝음의 들살이

이연순 · 인천, 밝음어린이집 원장

매 주 나가는 바깥놀이지만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친구들과 선생님하고 하룻밤 자야 하는 들살이는 아이들을 충분히 설레게 했다. 5세반 아이들은 캠프에 떠나기 며칠 전부터 하루하루 낱자를 먹어가며 설레임 반 불안감 반으로 간다 안간다 여러번 반복하더니 막상 떠나는 날에는 목직한 가방도 가볍게 메고 발걸음도 가볍다.

'꽃동산'이라는 이름답게 여기저기 꽃무더기가 아이들을 반겨주는 캠프장에는 나가는 아이들과 들어오는 아이들로 가득

했다.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는 동안 아이들은 엄마 생각은 하는지 안하는지.

"언제 수영해요" "기차타도 돼요"하고 싶은 일들을 얘기한다. 입춘식을 시작으로 물놀이, 옥수수밭 밭, 물총놀이, 우마차 타기, 에어바운스, 미꾸라지 잡기 등등 오후 프로그램을 끝내고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캠프파이어를 준비하는데 제법 굵은 비가 왔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감기라도 걸릴까봐 대치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용기 있게 한다. "선생님, 우리 감기 안 걸려요. 불꽃놀이에 가요" "그래, 이것도 새로운 경험이다. 가자!!" 아프거나 약한 아이들은 남겨두고 불꽃놀이에 참석해서 결국 밝음과 햇살 아이들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이왕 맞은 비 우비 입은 채로 부모님께 효도 전화 드리기.

"엄마, 음, 음, 음, 음..."

한결같이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궁금한 부모님들이 이것 저것 묻고 당부하나보다. 잠시 숙연해 지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에 들어와서는 옷갈아 입고 목욕하더니 저마다 삼삼오오 얘기하고 장난치느라 바쁘다. 툭툭이 형님반이 부모님께 편지를 쓴다고 배 깔고 엮드려서 "엄마 미안해. 수건을 이려버려서, 송대인 올림" 저마다 신기하다. 동생들은 벌써 잠이 들었는지 조용하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에 선생님들이 잠깐 모여서 점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일을 위해 놀자마자 걱정했던 아이들은 오히려 잘 자는데 물놀이 때부터 열이 나던 유진이가 고열이 나서 간호사 언니를 두 번씩이나 다녀가게 했다.

어른들이 들락거리고 잠자리가 설었는

지 여기저기서 잠꼬대하는 아이들, 굴러다니는 아이들, 엄마 부르며 우는 녀석들...

결국 선생님들은 29명의 잠부정에다 유진이 열내리는 일까지 새벽을 맞고 말았다. 덕분에 늦잠자버린 밝음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잘 자고 기분이 좋은 선화의 낭랑한 산도깨비 노래소리에 기분 좋게 아침을 맞았다.

어제 못다한 배타기, 토끼잡기, 모래성 쌓기, 곰돌이 타기, 산길 걷기 등 캠프장 구석구석에 준비된 프로그램에 진지하게 참여했다. 자리를 옮길때마다 진행하시는 캠프선생님이 "무슨 노래 할까?" "산도깨비요. 개고리 타령요, 해야해야요, 남생이 놀이요" "해봐"

대중화된 캠프선생님이야 알건 모르건 아이들은 각자 다른 소리로 신나게 불러댄다. 아이들 흥미에 맞게 구석 구석 다양하게 준비된 내용인지라 참여해보고 싶은 기대가 기다리는 지루함을 이겨낸다.

"한참 재미있는데 그만하래"

프로그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맛보기 식이었다. 늘 준비된 프로그램에 치여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정말 아이들이 맘껏 놀고 개고리 타령이 어색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들살이를 기대하면서 하룻밤 사이에 속 커버린 아이들이 못다 부른 노래를 자장가 삼아 선생님들은 돌아오는 차속에서 아이들이 깨울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자야 했다.

우리 대천 해수욕장으로 캠프 갔다왔어요!...

김금옥 · 서울, 둥근나라어린이집 교사

19 98년 7월 9일 비오다 맑음, 내내 걱정이었다. 며칠째 계속되는 장마 때문에, 아이들은 바다에 간다는 설레임으로 들떠있는데 말이다. 우리는 만발의 준비를 해 놓고 비가오지 않기만을 기다렸는데 아침에 내리는 슬픈비(?)...

둥근나라가 댔는데 설마 비가오랴 하는 배짱만을 가지고 바다에 간다는 기쁨으로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어린이집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맞이했다. 선생님들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은 즐겁기만 했다. 엄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차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자원봉사자 이모람 삼촌이랑 우산을 부여잡고 겨우 차에 올랐는데 이젠 비가 장대비로 변해서 안선생님과 나의 표정은 참담한 표정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래두...그래두... 희망만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경기도를 벗어나니 oh! my God이다. 비가 겹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고, 아침 일찍 오느라 고른 배를 엄마가 싸주신 김밥으로 땀땀하게 배를 채운 다음 거국적으로 망향휴게소에서 '쉬'를 하고 다시 대천으로 출발했다. 드디어 바다가 있다는 대천에 도착. 먼저 우리는 집꾸러미들을 숙소인 콘도라는 곳에 갔다 놓고 바다로 향했다. 시원한 바닷바람, 철썩이는 파도 소리는 아마도 우리 아이들의 모든 감각을 흥분시켜 버렸나 보다. 그 커다란 바다 앞에 아무도 두려워하는 아이없이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에 장단 맞춰 파도가 되어 보기도 하고 잔물을 마시면서도 아랑곳 하지 않는 아이들은 어느덧 바다라는 선물 앞에 하나가 되어 있었다. 너무 신이 나서 배고픈 것도 잊고 간식으로 수박과 과자와 김밥이 나오자 아이들

은 하나 둘 모래 사장으로 나와서 그것들을 눈 깜짝 할 새에 다 먹고 또다시 바다로 들어가 모래놀이에 열중했다. 신이나 바다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아이들을 사위하고 바다로 다시 산책 오자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겨우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백사장가를 걸으며 노래도 부르고, 모래 속에 조개도 찾아보고 달리기 시험도 하면서 말미잘과 소라와 게가 살고 있다는 곳으로 갔는데 새롭고, 신비로운 바다 생물들은 우리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엔 충분했다. 그 자연 앞에 아이들의 모습은 신비스러움과 기쁨으로 충만해 이것 저것을 잡아도 보고 만져 보면서 '선생님 여기로 와 보세요'를 연발했고, 엄마가 만들어 주신 가방에 가득 잡아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 우리 수영 했어요', '게 잡았어요' 주저리 주저리 종알대느라 여념이 없었다. 저녁은 이모 삼촌들이 만들어준 카레라이스를 거뜬히 먹어 치우고 복숭아를 먹으면서 콘도가 너무 좋다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고는 엘리베이터 놀이에 모두 즐거워했다. 비누로 깨끗이 목욕을 하고 우리는 염서에 오늘 본 것들을 그려 집에 가서 엄마에게 보여 주기로 하고 11시가 되어서야 내일을 기약하며 꿈나라로 향했다. 오늘 꿈나라는 환상적이지? 그치 애들아!...

7월 10일

창문을 열어 보니 바다 내음이 물씬 풍겼다. 아침 공기를 아이들에게 느껴보게 하고 싶어서 6시부터 '애들아 바다 가자'라는 한 마디에 아이들은 모두 부시시 일어났고(과연 바다의 위력은 대단했다) 새벽부터 이모 삼촌들이 준비한 아침을 먹고 우리는 바다로 또 출발→, 그런데 날씨가 어제보다 구름이 많이 끼어 있었고 바람까지 불어 수영을 할 수는 없었고 조개랑 게랑 소라를 잡기로 했다. 어제보다는 능수능란한 솜씨로 그것들을 잡으며 아이들은 즐거워했고 모래 한 움큼을 만들어 물이 계속 들어오는 놀이에 심취해 흥분으로 발그레해진 아이들의 붉은 행복한 모습이었다. 떠날 시간이 다 되어 놀이에 열중인 아이들을 달래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삼계탕을 맛있게 먹고 차에 올랐다. 날씨가 구름구름하더니 급기야 퍼붓는 비, 다행이었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하나씩 물썩 깊은 잠에 빠졌고 우리는 감사했다. 아이들에게, 하늘님에게, 도와준 모든 이들에게...

아이들에게 너무 신비롭고 새로웠을 더 없는 만족을 준 캠프인 것 같아 마음이 놓이고 기쁘다. 아이들은 오래 오래 대천바다를 기억할 것이다. 아마도...



성폭력 뿌리째 흔들기 -한국성폭력상담소-

순결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피해사실을 자신만의 숨겨진 비밀로 혹은 가족의 수치로 간직한채 일생을 고통속에서 살아왔다. 성폭력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신분의 노출이 두렵기 때문에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없었다. 1991년 4월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천리안과 유니텔에 [성폭력뿌리째 흔들기]를 개설하고 성폭력에 대해 잘못된 통념에 대한 바른 정보의 제공과,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찾아가시는 방법 -천리안.유니텔 GO STOPRAPE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폭력 관련 정보로는 [성폭력 필수 정보][위기 상황대처법] 및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우리동네 도움기관]등이 있다.

보육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는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변화, 어린이의 감정 상태, 피해어린이에 대한 처방 등이 있다.

이곳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상담은 피해여성 중심의 상담이며, 심리적 지원과 함께 즉각적 의료서비스연계와 고소시 법률 지원등 통합적인 상담을 하고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에 대한 상담실로는 [일반상담실] [법률상담실] [산부인과 상담실]이 개설되어 있으며, 상담은 접수후 24시간 안에 발송된다.

찾아가시는 방법 -천리안.유니텔 GO STOPRAPE



인천영아소모임 -까꿍-

이순·인천, 예술어린이집 교사

인 천영아소모임의 이름은 까꿍입니다. 예쁜이름이죠? 저희 까꿍소모임은 인천보육교사회 회원들로 구성되었구요, 한달에 한번 첫번째주 금요일에 모여 모임을 합니다. 모임장은 새싹,세쌍둥이 어린이집 박은아선생님, 인천지역에서 영아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032-429-6304). 함께 할 수 있습니다.

7월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쉬' 가리기

이번에는 모두 바른 터라 안경아, 박미향, 문유미, 박은아, 이순선선생님이 모여서 1시간 동안 알찬 모임을 했지요. 준비를 잘해오니깐 시간도 절약되고 모두 뿌듯하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달의 주제는 영아들의 쉬 가리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쉬 가리기는 언제 시작하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의 발제가 있었는데 대한소화과 학회 육아 백과와 보건복지부 기본 생활 습관 지도, 우리네 아이들 98.1/2월호 자료에서는 내용이 비슷하면서 특징적으로 다루어진 부분은 육아 백과는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며 24개월이 지나 계속 대소변을 가리던 아이가 못 가릴 경우 주위 환경의 변화와 심리적인 면에서 정서적 불안정에 원인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네 아이들에서는 대소변 가리기는 아이들이 생리적 발달이 충분하고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장 발달된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발달 사항을 보면 신경학적 성장 발달 사항,근육발달사항,정신적인 인식 능력 사항이 있는데 1)아이가 여러방을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다. 2)혼자서 옷을 입거나 벗을 수 있다. 3)최소 5-10분 정도 혼자서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한다. 4)무엇을 가르치면 충분

히 이해하면서 따라 할 수 있어야 한다.(18-24개월이 되면 배뇨와 배변의 의사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발달평가 : 눈, 코, 입, 머리 가리키기, 앉거나 일어서 보라고 하기 다른 방으로 걸어가 보라고 하기, 장난감을 가져오라고 하기 등 10가지를 시켜봐서 8가지를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논의를 할 부분도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대소변 가리기 시작을 몇 개월에 할 것인가? 가리는 훈련 방법은? 기저귀사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먼저 시기에 대해서 논의했다.

배운 것은 18개월로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0개월부터이며 24개월이 되면 완성된다고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겠다. 방법으로는 훈련시키는 2시간 정도 간격으로 때로는 잠자기 전에 잠자고 일어나서 식사 후등 이럴 때 교사가 누도록 하며 24개월이 지나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쉬 누는 시간을 일부러 주지 않는다.

24개월이 지난 아이가 실수할 경우에는 아이가 반드시 선생님께 쉬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하며 절대로 야단을 치지 말아야 한다. 야단을 칠 경우 심리적 압박으로 아이는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아이의 실수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의 성격은 36개월 안에 거의 형성됨으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기저귀 사용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천 기저귀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쉬가리기 시기에는 더 중요하다. 그것은 감각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종이 기저귀는 한참만에 갈아주므로)천기저귀는 젖은 것을 금방 느끼며 갈 수밖에 없음으로 아이가 금방 표시를 하게 된다. 또 여름에는 아예 벗겨 놓는데 그런 것보다는 팬티나 바지를 많이 가져오도록 해서 입혀 놓는 것이 좋다. 아이도 스스로 벗을 수 있고 쉬가리기는 훈련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대소변 가리기는 개인차가 많고 환경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받음으로 5세까지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약간의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실수한 것에 야단 치는 것도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아이의 성격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까꿍소모임 연락처 032-429-6304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이호백 글/이억배 그림/재미마주/6300원



글 이호백 / 그림 이억배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김랑희 · 서울, 초록별어린이집 교사

살 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
바로 사람이 아닐까. 그것도 바로 가족의 사람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화창한 봄날, 병아리 한 마리가 태어났어. 아주 튼튼해 보이는 병아리였지]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된다.

읽어주기 편하고 듣기 편한 입말로 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 부담이 없어 좋다.

글은 짧고 간결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다 전달하고 있고 7세 정도의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하는 그림책이다.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은 모든 닭들의 부러움을 사며 자라난다.

하지만 어느날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보다 더 힘센 수탉이 나타나 수탉은 좌절하고 만다.

[수탉이 절망에 빠졌을 때, 수탉의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여보 힘내세요. 당신은 아직도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이에요. 이리 좀 와보세요."]

하면서 그를 데리고 간 곳은 씩씩하게 자라나는 그의 손자 손녀들과 그를 닮아 힘이 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동네에서 제일 알을 잘 낳는 그의 딸들에게다.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은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수탉이라고 말하고 있다.

얼마 후, 환갑을 맞은 수탉은 수탉들의 자손들과 함께 잔치를 열고 그제서야 다시 한 번 세상에서 제일 멋진 꼬리 깃털을 활짝 펴게 된다.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은 아주 재미있다. 어디에도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림만 있지만 아이들은 그 그림을 '가족 사진'이라고 얘기를 한다.

수탉과 수탉의 아내, 안경 쓴 닭, 앞에서 이제 막 깨어난 손자와 손녀 병아리 그리고 모자 쓴 병아리, 막 달려오고 있는 병아리와 그 병아리를 부르고 있는 또 다른 병아리...

아이들은 하나 하나를 짚어가며 수탉의 가족들을 찾아간다.

한 번 읽어서는 수탉의 아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행복'을 느끼기에는 좀 어렵지만 여러 번 아이들에게 읽어주다 보면 분명 아이들도 진한 감동을 느끼기에는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그림 또한 사실적이고 우리의 정서를 충분히 담고 있는 정성 어린 그림이라 그런 지 순간 순간 보는 이의 눈을 붙잡는다.

내용을 이해하려면 7세 정도는 되어야겠지만 연령이 어린 아이라도 그림만 보고도 아주 좋아할 것 같다.

우리의 그림책도 이렇게 재미있고 멋지구나 하는 반가움이 앞서 는 그림책이다.



우주의 무수한 삶 가운데 가장 핑계 가 많은 '인생' 값 하기 위해

위양자
본회 전 부회장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
이길래 이렇듯 법을 만들
어 내는 걸까? 지금과 같
은 상황에서 어찌보면 우
주에 살고 있는 무수한 생
명의 삶 가운데 가장 오만
하고 파괴적인 삶 바로 그
것이 '인생'이고 '법'이
그 파괴의 칼날이 되고 있
는 것 같다.

태 초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주에는 무수한
생명체가 삶을 유지하고 있다.

인간이 알아주든 아니든, 그러나 오늘날 어떤 인간
들은 마치 인간만이 모든 생명을 지배하고 있는 양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다.

'98년 여름은 어느 해보다 무덥고 찰잡한 계절이
었다. 게릴라성 집중 호우, 용두사미의 양심수 석방,
식물 국회, 밥상팻긴 밥그릇이나마 지키기 위한 현
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한달간의 초라한
국기달기 운동. 이런것들이 가슴벅차아할 건국 50주
년의 여름을 장식했다.

50년만의 정권교체와 함께 온 폭풍우는 사회보장
이 거의 없는 우리 현실에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어
살시간에 삶의 터전을 쓸어가기에 충분한 위력을 발
휘하고 있다. 어제까지는 그 소용돌이에서 좀 떨어져
있었다

해도 빠르게는 오늘밤을 자고 나면 혹은 내일 해
가 지기 전에 나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건국 50주
년, 이 땅, 국민으로서 긍지를 느꼈던 순간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수기 모집에 응모할 사람은 과연 누
구일까?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두고 어떤 이들은
원-원 계임이었다고한다. 그나마 고통분담차원에서
예기다. 또 어떤 이들은 정리해고에 관한 법을 만들
어 놓고도 법에 따라 정리해고를 하는 것에 불리적
으로 맞서는 것은 잘못인데 정치권이 개입해 중재까
지 했다면 우려와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
다. 아마 이들은 노동을 통해 생산을 하지 않아도
이미 집중된 자본 그 이자만으로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보인다. 언제는 한가족이
라던, 오로지 팔 것이라곤 노동력뿐인 노동자들을
더 이상 사지 않겠으니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라
고 내치 겠다니 말이다.

요즘들어 자신의 불만을 말로 하고 사는 사람은
극히 적다. 가정에서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
을 쓰며 참고 회사에서는 남의 일이 내일이 될까 어

께가 쳐지고 있다. 그럼에도 더 가지기 위해 법을 지키라며 불평 불만하는 자들은 어
떤 인생인가. 법은 상식적으로 지켜질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드는 최소한의 보장이자. 결코 어느 한편만의 부당함을 위해서도 이익
을 위해서도 아니다. 건국과 함께 탄생한 또하나의 굴레, 그것은 바로 현대사회의 법
이다.

법치국가. 사회가 복잡해질 수록 법은 자주 만들어진다. 도대체 왜 이리 많은 법이
필요할까? 인간을 포함한 대자연의 섭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데 말이다. 도대체 인
간은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듯 법을 만들어 내는 걸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찌보
면 우주에 살고 있는 무수한 생명의 삶 가운데 가장 오만하고 파괴적인 삶 바로 그것
이 '인생'이고 '법'이 그 파괴의 칼날이 되고 있는 것 같다.

21세기를 앞둔 지구,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 1998년을 견디고 있는 예전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거리로 나갔을 일이 내일이 되버린 사람들 천지
다. 바로 내가 오늘 그렇지 않으면 내일 그렇게 될지 모르는 사회에 사는 사람에게
굳이 법을 들먹이거나 인간의 존엄성 따위를 들먹일 필요가 없다. 생명으로서의 삶
자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없이 문명만이 발달한 사회에서 정신적 위안도
찾기 힘들다.

그렇다면 지구의 종말이라도 기대해야 하나? 그러나 그것은 달이나 화성에 가서도
살 수 있을만큼 자본을 가진 한용름도 안되는 인간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그
보다는 오늘 저사람이 저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면 바로 내일 내가 그렇게 될 사람들
이, 오늘, 저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않는 것. 이것이 바로 법따위를 넘어 공
생하는 삶이 가능하게 하는 진리가 아닐까. 연대라고도 불리는 이 끈을 놓지 않는다
면, 잠시 느슨하게 잡았다거나 혹은 손을 놓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순간 연대
의 끈을 움켜잡자. 인류의 역사는 물질의 빈곤과 풍요가 인간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
렸음을 교훈으로 주고싶어 안달이 나 있는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얼마전 미용실에 갔다. 동네 한아주머니는 '한 일년 허리띠 졸라매면 되잖겠나. 그라
나고 평생간다면 못 살지' 하며 허리띠 졸라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미심쩍다. 허리띠 졸라매고 허리살만 빼면 미인이 되나. 밥만 적게 먹으라는 것이 아
니라 코도 고쳐야 하고 눈도 고쳐야 하고 쳐진 가슴은 팽팽하게 해야 하고 주름은 없
애야 하고 빠진 이는 틀니를 해야하고 아마 평생해야 할텐데 말이다. 아마 그 아주머
니는 내년에도 이러면 과연 죽을까? 어쩌면 죽을 지도 모르지만 몇년이 지난후에 '허
리살은 괜히 뺏어 허리살빼고 나니 힘이 없어 일도 못하고.....' 엘리노와 라니노라는
이름으로 인간에게 불리운 자연의 분노는 21세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인류에게, 한국
의 민중들에게 지금보다 덜 먹고 덜 입고 덜 배워도 안 죽을 수 있으니 제발 착한 사
람들 끼리 손에 손을 맞잡고 우주에 존재하는 무수한 생명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인생'
이라는 이름을 가진 값을 하라고 어느때보다도 강력하게 요구하는지 모른다.



유빈이의 여름방학(1998년 8월)

나온미·고양, 오손도손애기방 교사

지난 8월 초, 일주일간 여름방학을 보냈습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세 식구의 휴가라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삭막한 아파트촌을 벗어나 바다를 향해 떠났습니다.

작년에는 동해바다를 보았기에 이번에는 서해쪽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떠나기전부터 유빈이는 놀러간다는 이야기만으로도 즐거워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는데 유빈이도 튜브와 수영복을 자기가 고르며 친구들한테도 보여준다고 좋아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비가 많이 내립니다. 작년처럼 하룻만에 올라오게 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서울을 벗어나면서부터 비가 개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잠이 부족했는지 유빈이는 내내 잠을 잤습니다. 한번씩 일어나서 바다에 왔냐며 묻곤 했는데 바다를 본다는 생각에 설렘이 넘칩니다.

가는 길에 흥성에 들러 먼저 세상을 뜬 아빠 후배의 산소에 잠깐 들렀는데, 산소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며 인사를 하겠더니 그냥 가자고만 합니다. 가끔 엄마가 죽는 시늉을 하면 손가락으로 눈을 벌리며 막 우는데 그래도 아직은 죽는다는 것과 땅에 묻히게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나 봅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 안면도에 있는 조그만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방풍림으로 조성된 송림이 해안을 따라 울타리처럼

길게 펼쳐진 한 모퉁이에 우리 셋의 짧은 휴가를 지켜줄 작은 텐트를 쳤습니다. 방풍림은 위력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 바다쪽으로 솟은 모래 언덕위 소나무가지는 씩씩히 흔들리며 손짓하고 있는데 우리의 보급자리에는 풀잎하나 미동치 않는 무종지대를 연출하여 경기 중부를 감타하고 있던 무더운 습기가 고스란히 피부에 전달되었습니다. 소나기가 몰아치 직전의 그 무더위에 백배쯤은 훨씬 더 고온 다습한 기운이 송림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나랏가 수난을 겪고 있으니 조금하자는 마음으로 바람 많고 화트인 바닷가나 모래 언덕은 애초에 피하기로 했으니 참고 견딜 수 밖에..... 빨리 바다에 가자고 손을 당기며 모래 언덕을 오르는 아이를 뒤따르면서 덩달아 들뜨는 나를 발견합니다. 시원하지만 끈끈한 느낌의 바다 바람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날리고 송송 스는 땀을 식힙니다. 동글해지는 아이의 눈이 신기하고 그속에는 넓은 세상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서해안이라 출렁이는 물을 봐야 하기 위해서는 100미터 정도 펼쳐진 모래밭을 지나야 했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이의 다리는 힘겹게 움직이고 바다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바다는 지난 몇 개월 나를 짓누르고 있던 세상일을 잠시 잊게 했습니다. 아이의 손에 힘이 들어가고 아리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빨리 튜브끼고 물로 들어가자 합니다. 몇일을

기다리며 키워가던 튜브끼고 물에 들어가기에 대한 희망을 간신히 달려어 텐트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고 무더운 그 곳은 모기 천지라 방심할 겨를도 없이 피를 빨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고통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큼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작년 이마때도 그랬듯이 휴가가 주는 흥분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피곤하겠인데

키작은 텐트에 누어서도 여전히 고성방가로 주위를 씨끄럽게 하다 늦게서야 잠이 드는 아이를 보며 텐트 주변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임시 파출소에서 중부의 호우에 겁을 먹었는지 하도 성화라 바람 없는 우리의 임시 거주지를 단속하느라 더워서 잠을 잘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씩 후두둑 텐트를 때리는 빗소리가 나서야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쏟아내릴 것 같던 하늘이 열리고 따가운 햇살이 나뭇잎사이를 뚫고 내려와 텐트를 뜨겁게 달굴때 쯤에 유빈이의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대하지 않던 좋은 날씨로 아침을 맞으니 휴가 일정을 더 늘리고 싶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는 지난 저녁의 바다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문인지 여전히 튜브를 옆에 끼고 야단입니다. 서둘러 아침을 마치고 수영복으로 다들 갈아 입고 다시 언적을 오르기 시작 했습니다. 소나무 숲사이로 펼쳐지는 푸른 하늘과 숲을 뒤흔드는 강한 바람이 있어 바다는 더욱 좋게 보였고 여전히 달리는 아이의 모습에 우리 부부는 가슴 한가득 채우는 생활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바다다아" 어겨주춤한 상태로 튜브를 끼고 가슴에는 아이보다 더큰 공을 안고 아이는 "바다다"라고 소리치릅니다. 아이에게는 여전히 높은 삼십 센티미터짜리 파도가 물려드는 해변가에는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습니다. 바닷가에 몇걸음 남기고 다가서자 아이는 거의 흥분에 가까운 상태에 다다른 것 처럼 보입니다. 아이의 바다에 대한 몇날 몇일의 상상과 기대가 결국은 작은 사건을 만들게 될줄

이야! 아이는 무척이나 서둘렀습니다. 물놀이 도구를 단속하는 우리의 손길이 느려 터지게 느껴지는 지 짜증을 내며 보채다가 바지입듯이 착용하는 튜브를 채 입히기도 전에, 미처 무릎정도까지만 올린 그순간에 아이는 자기 머리보다 큰 공을 가슴에 안고 바다로 뛰어 들고 마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습할 틈도 없이 엉거주춤한 상태로 물로 뛰어든 아이는 무려 삼십센티미터는 되어 보이는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무릎에 걸친 튜브에 달리던 걸음이 걸려 물려드는 파도(?)속으로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번개처럼 아이를 일으켜 세웠지만 한사발은 뱉 법한 소금물을 마신 후였습니다. 바다를 갈구하던 바로 직전보다 더 흥분한 모습을 하고 있는 아이를 바로 세웠더니.....

순식간에 바다를 등지고 돌아서 달리면서 일갈합니다. "집에 가자"

"바다다아"라고 외치며 물속으로 뛰어 들던 때부터 "집에 가자"뒤돌아 달리는 대는 몇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대한 동경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휴가를 마치는 하루 반나절 동안 아이를 물속으로 끌고 가려는 엄마, 아빠와 바다를 바라다만 볼 뿐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아이와의 전쟁이 집요하게 벌어졌고 끝내 아이의 발목 정도만큼의 성과만 얻었습니다.

아쉬운 휴가는 끝이 났습니다. 여전히 갑갑한 귀경길의 도로 사정은 휴가에 대한 아쉬움을 더욱 키웠습니다.

아이는 오늘도 불꽃장으로 뛰어돌며 "여기는 바닷가야."

"이건 바다물이야(불꽃장을 가득 채운 공들을 보며), "이건 조개야(빨간공)"

"애들아 이건 모래야(파란공을 들며), "애들아 이건"

지금까지도 주말을 보낸 후 무엇을 하고 놀았느냐고 물어보면 "유빈이는 바다에 갔었다!"하면서 그때의 추억을 자랑합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은 가슴깊이 새겨지나 봅니다.



편안하게 어우러지는 그런 빛 - 그 이름은 아쥘마!

주혜민 · 서울, 씩씩이어린이집 교사

계 속되는 비가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긴 처음인 것 같아.

쏟아지는 빗속을 아이들과 우산을 들고 나가보지만 어느새 우산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온통 물바다가 되어버린 이 땅.

정신없이 때론 정신을 놓고 살다보니 너에 대한 소식은 우리네아이들에 실린 글이 모두가 되어버렸구나. 가락이가 백일이 되었다는 글을 읽고 축하의 마음보다는 나의 무심함에 미안한 생각이 먼저 들었어. 그러면서도 선 듯 글한 줄 못쓰는 아쥘마가 되어버린것 같아 서글퍼지기도 했었어. 나또한 아이를 키우는 초보엄마가 되었는지라 너의 힘겨움이 몸소 느껴지는 것 같단다. 그러면서도 너에게 느껴지는 곳곳한 사람이 작은 미소로 남아 늘 너의 글을 먼저 뒤적거리는 버릇이 생겼단다. 이글이 실릴 때쯤이면 가락이가 8개월은 족히 되었을 것 같은데... 작은 병치레가 시작되는 때라 많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이번 호에도 너의 글이 실리지 않아 혹시 아이가 아픈진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생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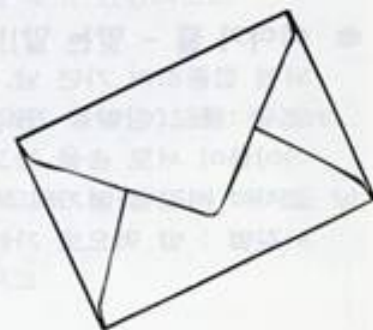
요즘 나는 아이가 아픈데(?)에 자유를 느끼고 있단다. 이상하지? 엄마의 스케줄에 끌려다니다보니 아이가 병에 자주 걸리고, 이번에도 중이염에 기관지염까지 겹쳐 친정에 가있게 되었어. 그러다보니 본의 아니게 나는 한결 자유롭게 나의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단다. 아이와 친정엄마가 치루는 전쟁과는 아랑곳 없이 말이야.

처음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할 때는 막연한 각오가 있었는데 정말 그건 막연한 각오일 뿐 실제 내겐 아무런 마음의 위로조차 되어주질 않았단다. 아이로 인해 겪게 되는 서글픔이라고나 할까? 뭐그런 잡다한 것들이 모든 활동의 발목을 잡더라구. 기동성이 떨어지고 고민의 농도도 높아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내자신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하더라. 나는 나데로 이런 고민으로 살아가지만 상구는 상구데로 적응하기 위해 무던히도 힘겹게 내생활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자책감이 생기고 거기다 애가 아프다보니 그런 생각은 '일을 계속해야되니'로 귀착되어지기도 했어. 그 옛날 일하는 엄마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아니 경멸에 가깝게 무시했던 것들이 이제야 나의 온몸의 작은 세포조직으로까지 전달되는 기분이란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서글썩을까? 뭐 그런 것들 말이야. 이제야 아이를 갖은 일하는 여성의 고통을 알게 되었으니 아마 나의 활동은 이제부터라는 생각이 든다. 언젠가 유난히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상구를 매정하게 무시한 적이 있었어. 아이는 숨이 넘어갈 듯 내 발밑에서 울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버티다 아이를 교사방에 안고들어가 같이 운적이 있었단다. 애도 울고 나도 울고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으니 아이는 금새 울음을 그쳤는데 서글픈 마음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지. 그때 상구는 몸이 아파 보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 그런 일이 있은 후 이상하게도 내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 그것이 나의 의지는 아닐지라도 아이를 통해서 나의 욕심이 조절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구. 또하나 아이들이 새롭게 보아지는 거야. 아이 이야기를 꺼내니 한도 끝도 없어지는걸 보니 영락없는 아쥘마가된게 틀림없다. 미양이 너가 가까이 있다면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서로를 달랠 수 있을텐데...

함께 하고 있는 씩씩이 이모들이 도움과 따뜻한 배려가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하고 있지. 그 옛날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하는 가슴저린 활동에서 이전 아쥘마로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는 초보 활동가로 서 있는 것이지. 이런 내모습이 씩 괜찮게 느껴진다. 황홀한 빛으로 빛나진 않지만 편안하게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빛 말이야. 이게 다 아쥘마가 된 덕인 것 같다. 미양이 너는 어떤 아쥘마로 변해있을까 궁금하다. 아픈 상처가 많은 너이기에 늘 안쓰러움이 내겐 남아있었는데... 너의 씩씩함이 참으로 보기 좋았단다. 너의 글속에서 발견할 수 있단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곳곳하게 해내고 있는 너의 당당함을 말이야.

가락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얼굴도 보고 싶고 말이야. 언젠가 우리가 편집부 일을 했을 때 누군가 아이를 낳으면 육아일기는 말아서 연재해야한다는 말 생각나니? 가락이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길 권하고 싶구나. 읽기 편안한 너의 글이 늘 가깝게 대하고 싶은 건 나의 욕심만을 아닐 꺼야. 이 세상에 단하나 뿐인 우리의 소중한 보물들을 위해서 말이야.





안산어린이집에서 생긴 일

서지예(달님반 교사)역음

☺ 이야기 하나 - 만원이 어때서?

공룡대전 견학을 준비하던 한라반에서 생긴 일

교사 : 오늘 6,000원(견학비)가져온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이들이 손을 드는데,

단 한명이 손을 안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교사 : 은별아, 왜 그래?

은별 :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만원 가져왔는데요.

역시 공룡대전 견학을 앞둔 어느날..

기진 :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 엄마가 만원이 육천원보다 많은 거래요.

교사 : 응. 그래. 여기 잔돈 4천원 가져가

4천원을 받아든 기진은 너무 좋아하며 녀장을 몇번이고 세어보며 흡족해 했다.

다음날 기진이 어머니의 말씀

양기진 어머니 : 선생님, 저희 기진이가요. 만원을 쥐도 안 받으려고 하더라구요

교사 : 왜요?

양기진 어머니 : 만원을 주니까, 자주 더 쥐야 한다잖아요. 그래서 "만원이 육천원보다 더 많은 거야" 하고 달래서 보냈어요.

☺ 이야기 둘 - 맞는 말!!

뇌염 접종하러 가던 날, 어린이집 차에서 있었던 일.

교사 : 음..(창밖을 가리키며)저기 저 예식장이 뭐 하는 곳인지 아는 사람?

아이들이 서로 손을 들고서 "저요"한다.

교사 : 서길범 얘기해 봐요

서길범 : 밥 먹으로 가는 데요.



☺ 이야기 셋 - 하이! 히틀러

사무실에서 교구를 만들던 김실이선생님.

김선생님 : 앗!

영양사님 : 왜 그러세요?

김선생님 : (몹시 난처해하며)아이..어떡해. 손가락이 붙었어요.

순간 접착제를 쓰다가 그만 오른손의 손가락이 모두 붙어 버린 것이다. 그날, 김 선생님은 뻗뻗해진 손을 구부리지도 못하고 '하이 히틀러' 손으로 살아야 했다고.

☺ 이야기 넷 - 내이름은 뭘까?

영아반에서 출석을 부르다 생긴 일.

교사 : (김미나에게)당신은 누구십니까?

김미나 : 김미나예요.

교사 : (이수빈에게)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수빈 : 이수빈이요.

교사 : (박지영에게)당신은 누구십니까?

박지영 : 박...야..시..

교사 :??

지영이는 평소 이쁜 짓을 많이 해서 '야시'라는 애칭을 갖고 있었다고...

☺ 이야기 다섯- 선생님이 시집 못 간 이유는

박은하선생님의 생일날, 골목대장반 아이들이 너무 나도 생일 카드를 썼는데... 그중에서 민혜의 생일 카드를 살짝 들춰보니.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빨리 커서 결혼하세요. 그리고 또 빨리 커서 애기도 낳으시면 좋겠어요"

그 카드를 읽은 박선생님은 자신의 작은 키를 원망했다고

비건뒤의 맑은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박지예라·서울, 햇살어린이집 원장

비가 갠 뒤 날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많을 것이다. 나도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다. 맑은 하늘과 시원한 바람, 깨끗해진 거리의 모습 그리고 나의 마음까지 환해지는 사람들의 맑은 모습은 나의 기분을 아주 상쾌하게 한다. 우리 사회도 먹구름이 빨리 겹쳐 살맛 나는 세상에서 서로 웃는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놀이방에서 어린이집으로 이전을 하자마자 IMF라는 말이 나와 무슨 말인가 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부모들에게서 매스컴에서보다 더 진하게 느끼게 되었다. 부모들이 일자리를 잃고 아이들을 할머니 댁으로 보내는 모습은 시작에 불과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실업자 문제는 가정에서, 어린이집에서, 길거리에서 어디에서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가정들이 타격을 많이 받으면서 가정이 붕괴되고 황폐해져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설 곳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어린이집을 계속하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 혼자만 살아 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비건 뒤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햇살 가족 잔치를 하면서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엄마들과 교사들이 준비한 소중한 음식과 어른 아이 하나되어 공동체놀이를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웃음 속에서 마음속 깊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생활이 고단하고 아이들에게 물질적으로 많이 해주지 못해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은 아이들이 먼 훗날 인생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은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가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이 힘들때에도 언제나 한결 같은 모습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물론 신영이아빠(남편)에게도.....

헤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황미혜·「우리네 아이들」전편집인, 주부

우 선, 이번 큰 비로 우리네 아이들을 보는 식구들중 피해를 입은 가정이나 어린이집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모두들 아무 탈 없이 이번 물난리를 보냈으면 하는데 말입니다.

21개월 된 우리 헤린이가 어린이집 생활을 한 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 짧고도 긴 시간을 보내면서 얻은 낯은 교훈을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 드리고 싶어 어수룩한 글을 써봅니다.

「우리네 아이들」 편집일을 그만둔 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남들처럼 표현한다면 '컴퓨터 마우스를 놓은 지 한달'이라고 해야 하나요?

대학 졸업하고 6년이 지났습니다. 그중 4년을 어린이집과 옛 지택연에서 보냈고, 나머지 2년중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네 아이들」을 편집하며 보냈습니다. '보육'이라는 단어와 즐기치게 보내온 시간들입니다.

이런 나에게 내일의 모습을 그려보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별 수 없이(?)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이젠 보육현장을 떠난 지 오래라 노래 하나 읊조리거나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원장은 하고 싶어도 경력이 모자라서 결국엔 대학원 진학을 결정해버렸습니다. 뭘 하든 '보육'이란 글자가 들어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 이상 나름대로의 내용을 갖춰야만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네 아이들」과의 씨름도 끝내버렸습니다.

6년동안 영어라고는 '세계의 아침인사'라는 노래에 있던 'Good morning'이나 말했을까 써먹을 일이라고는 전혀 없던 터에 그 어렵다는 TOEFL을 공부하자니 죽을 맛이였겠조. 가뜩이나 구제금융시대라고 월급이 고 상여금이 고 척척 깎아대서 생활비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지만 공부를 제대로 하자니 아이를 어딘가에 맡겨야만 했고, 바로 근처에 사는 친정엄마가 하루가 멀다 하고 헤린이를 보러 오시지만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기고, 또 아이에게 외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한계도 있기에 근처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맡겼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닐 때마다 어린이집 간판이 붙은 곳은 기웃기웃거리려 보았습니다. 대충 다섯곳을 여러모로 재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걸어서 1분도 안되는)은 가정집에서 하는 놀이방입니다. '영재교육'을 한다며 무슨 교육단체 회원간판을 내걸었는데, 가끔씩 창밖으로 아이들이 '아아어어'를 따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보다는 자주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에 울음소리야 당연한건데도 엄마입장에선 선뜻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봄에 아이들이 골목에 나와 노는 걸 몇번 지나가면서 봤더랬습니다. 몇 안되는 아이들이 맨발로, 지켜보는 사람없이 뛰어놀니다. 골목에 주차된 트럭 위로 큰 녀석들은 올라가서 슬바꼭질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좀 있어야 놀이방 선생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와서 아이들보고 신발을 신으라고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집 정도 지나면 지금 헤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보입니다. 노랑고 커다란 간판이 눈에 띄는 곳입니다. 이곳의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찾길을 건너 몇분 더 걸으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제법 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엔가 신축한 건물이라 깨끗하고 시설도 좋습니다. 골목 전신주에 붙은 이 곳 포스터를 보면, 영어학습도 하고 재롱잔치도 멋지게 합니다. 번듯한 어린이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린이 외할머니네서 조금만 가면 또 하나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곳도 작년에 이전한 곳이라 시설이 괜찮습니다만 다닥다닥 붙은 교실에 좁은 복도가 숨막혀 보였습니다. 그리고 찾길을 바라보고 있어서 흑 아이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 차들이 지나갈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외할머니 친구분 손자인 재민이(27개월)가 이곳을 다녔었는데, 자유놀이때 모든 연령층의 아이들을 섞어놓아선지 큰 아이들이 자주 때려서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곳은 구립어린이집입니다. 다섯곳 중에서 유일하게 마당이 있고 그네와 미끄럼틀같은 놀이시설이 여러 가지 있고 마당 한 칸으로는 꽃밭도 있습니다. 사실 헤린이를 제일 맡기고 싶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재교육하는 놀이방 다음으로 맡기기 싫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맡기기 전에 어린이집에 문의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선별기준 1차는 외관과 평소 내가 받은 느낌들이었고, 2차는 전화문의를 통한 보육료와 시간, 그리고 교사(원장)의 태도입니다. 3차는 물론 방문상담이구요.

이 구립어린이집은, 국공립은 종일제 원칙이어선지 반일반도 똑같이 보육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종일반처럼 아이들을 보육해도 상관

없을 거 같은데, 2시가 되면 반일반 아이들은 가방을 메고 엄마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 이 사실은 재민이할머니가 얘기해주셨습니다. 그 어린이집 바로 위가 재민이엄마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여서 재민이는 지금 이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보육시간을 물어보았습니다. 대학원 진학준비중이라고 했더니, 원장이 부재중이라 대신 받은 교사는, 나는 집에 있기 때문에 9시 좀 넘어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전에 어린이집 담벼락에 붙은 원아모집 공고에는 보육시간이 7시반인가 8시반으로 되어있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공부 좀 더 하겠다고 헤린이를 일하는 집 아이들처럼 일찍 보냈다가는 미운살이 박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외할머니는 재민이할머니네 갔다가 그곳 교사들한테 섭섭했던 얘기들을 듣고는 내게 전해줍니다. 오늘 저녁엔 이런 얘길 들었습니다. 재민이를 데리러 갔는데 마침 재민이가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 합니다. 그런데 교사 물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더라 합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아서 다른 데로 보내고 싶지만 그나마 시설이 좋고 교육을 잘 한다고들 하니까, 그리고 재민이가 자주 어린이집을 옮겨도 좋지는 않을거라 어찌지도 못합니다.

이래서 나는 요즘 헤린이를 그곳에 맡기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헤린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시설로 보면 열악한 편입니다.

주택가라 그런지 종일반 아이들은 거의 없고 주로 반일반 위주로 운영되는데 그나마도 다 합쳐봐야 20명도 안되는 작은 시설입니다. 교사는 둘이고, 원장격인 교사의 남편이 차량 운행과 함께 가끔씩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합니다. 남자어린이 어떻게든 아이들과 놀아준다는 건 좋은 것이지요.

이곳은 전화문의를 해본 곳중에서 보육료가 제일 싼니다. 그리고 요즘 생활들이 어렵다면서 입학료를 안받고 대신 가방값으로 1만원만 받습니다.

교사들은 항상 웃고 있습니다. 한달 넘도록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면서 들은 울음소리라고는 아침에 헤린이가 엄마가 떨어질 때 잠깐 터뜨리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리 새것은 아니지만 미끄럼틀과 볼풀, 말, 자동차 등 아이들이 타고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바깥놀이는 한달에 한번 이상 갑니다. 지난 달에도 두 번을 나갔었고, 이달엔 어제 삼성어린이박물관에 갔다가 바로 오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근처 올림픽공원에서도 놀다 왔습니다. 내일도 날이 좋으면 공원으로 나들이를 갈 생각

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수가 적어서 헤린이가 적응하기에 부담이 적고, 또 이렇게 바깥 놀이를 가는 것도 날만 좋고 교사가 마음이 동하면 언제든 나가서 반나절을 꼬박 밖에서 뛰놀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전반은 2시까지지만 이런 날은 3시가 넘어서야 돌아옵니다.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아이들이 실컷 놀도록 하는 것이지요.

헤린이를 맡기고 첫날은 괜찮았습니다. 낯선 곳에 혼자 두고 엄마가 가 버리니까 헤린이는 당황스러워했지만 별로 울지도 않았고, 나 역시 이전의 경험을 기억하며 한동안은 헤린이가 힘들어할 것이라고 내심 마음을 다져먹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 나흘...

시간이 지나면서 헤린이는 언제나 엄마와 떨어지는 그 잠깐만 울다가 이내 그치고 너무도 잘 노는데, 정작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던 나는 헤린이를 맡기고 돌아와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황급히 돌아오기 바쁘니 똥들 눈에 제대로 보였을까요? 블록놀이하는 아이들이 없길래 블록이 없나 어이없는 걱정도 하고, 새까매진 양말을 보면서 한숨도 쉬고, 한달 넘도록 교육계획안을 받아보지 못해서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7월 한달은 오전반이 3시까지 연장보육을 했는데 헤린이는 낮잠 때문에 2시 정도에 데려오다보니 계획안을 미처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 사정에 익숙치 않아서 생기는 이런저런 고민들로 답답했었습니다. 이제서야 꼼꼼히 되짚어보니 헤린이를 이곳에 맡기기 잘했다고 여겨집니다.

아직도 아쉬움은 남습니다. 계획안에 식단이 적혀있지 않아서 헤린이가 뭘 먹는지, 혹은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이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어느 어린이집이나 그렇지만 금새 양말이 더러워지면 내가 잠깐씩 헤린이 데리러 갈 때 바닥 청소만이라도 하고 오면 어떨까 싶기도 하지만 교사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생각을 접어둡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실내화를 사 신겨야 할까 봅니다. 헤린이가 볼만한 그림책도 별로 없습니다. 질 단위로 구입한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밖에도 바깥시설이 없고, 화장실이 건물 복도에 있어서 현관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는 것과 그래서 더운 여름철에 커다란 대야에 물 받아 놓고 맘껏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곳은 헤린이에겐 좋은 어린이집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교육내용이 있다 한들 좋은 교사만큼의 몫은 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은 인원이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적응하기에 다소 쉬운 규모, 앞집 아이가 놀러가도 받아주는 어린이집, 항상 웃는 어린이집 교사들, 그리고 언제고 갈 수 있는 바깥놀이...

헤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선 예전에 내가 일하던 가리봉동의 구로어린이집 냄새가 문득 문득 느껴집니다.

헤린이를 맡기면서 나는 어린이집 앞으로 (우리네 아이들) 1년치를 신청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헤린이를 위해서,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노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독기간이 끝나갈 무렵이면 어린이집 교사와 나의 '보육'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닮아져 있길 바랍니다.

보육시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유치원에서도 저연령 아이들을 받고 종일제도 합니다. 사설학원은 구멍가게만큼이나 많고 베이비 시터를 연결해주는 곳도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은 서로 아동을 유치하느라 여념이 없게 만듭니다. 때문에 보다 넓고 큰 규모에 세련되고 멋진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다른 곳보다 뛰기 위해서는 영어도, 피아노도, 한글이나 수 개념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나는 케케묵은 사실 하나를 다시 꺼내봅니다.

보육시설에서 얼굴근육이 떨리도록 웃으면서 아이들을 대하느라 바쁜 선생님들.

좋은 시설과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할 몫이고 바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선생님들 스스로가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시설이자 교재라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었으면 합니다.

구로어린이집 근무시절 한 엄마가 입소상담을 왔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특별히 좋아되지도 않는 시설, 그저 작은 마당에 아이들이 타는 미끄럼틀과 스프링 말, 텃밭이 고작이었던 어린이집에 그 엄마는 조금 실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 소개를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엄마가 내부를 둘러보고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더니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는 아이들 표정이 너무 좋아보여요."

우리 보육교사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니었을까요?

보육계 풍향

안산보육정보센터 국악교육

기간 : 9월9일 ~ (총16주)

교육일시 : 매주 수요일 6:30-9:30(화요일로 변경될 수 있음)

교육장소 : 미정

강사 : 임수정선생님(한국민족예술 연구소, 중앙대 강사)

참가대상 : 보육시설 교사 및 시설장

교육비 : 20만원

문의처 : 0345)85-1580

신간안내

‘세밀화로 그린 보리 아기그림책’ 열 다섯권이 드디어 다 나왔습니다. 우리 곁에 없어서는 안될 동물과 식물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제목 : 세밀화로 그린 보리 아기그림책 5

기획 : 도토리

그린이 : 권혁도, 윤봉선, 이태수

가격 : 13,500원

구성 : 13 꽃 속에 숨었지(들에서 피는 꽃)/ 14 나무야 안녕(마을에 사는 나무)/ 15 새야새야(집가까이 사는 새)

유아교육개혁안의 비판, -유아학교의 허구성

표갑수편/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994년 이래 한국의 유아교육개혁안이 6차례 걸쳐 발표되는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유아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사회에 알맞는 전문적, 체계적 그리고 합리적인 유아교육개혁안의 모색과 보육학계의 주장을 위해 편자는 유아교육개혁안의 비판-유아학교의 허구성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보육계 풍향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시설 건강교사 수첩 발간!!!

보육시설에 아픈 아이가 있으면 선생님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어린이집의 특성상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염성 질환이 발생하기 쉽고, 한정된 인력과 시간으로 아픈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린이의 건강문제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행사 등 여러 가지 문제의 우선순위에서 뒤져 있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사교육이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린이집에서는 검진 위주의 건강관리 계획을 이용하게 되고 질병이 발생하면 처리하는 방식이 미숙하여 어린이의 부모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40명 안팎의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에서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 간호사나 의사를 고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아이들의 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강담당교사는 필요합니다.

소정의 교육을 받은 건강담당교사가 어린이집의 아이들과 교사들에 대한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 일년 동안의 단체 건강관리, 의료기관 이용방법,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치료비 보전을 위한 보험, 질병이 있는 어린이 개인의 간호 등을 맡고 주변의 1차 의료기관과 접촉하여 주치의관계를 맺어 놓는다면 어린이집의 역할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시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사선생님들과 함께 보육시설의 교사가 건강교사로서 역할을 다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강교사수첩을 만들었습니다.

건강수첩에는 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관련 서식, 보육시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20가지)과 교사가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할 증상이나 질병(30가지), 신체기관별 질병(50가지), 행동장애와 영양장애, 의료기관 이용방법, 시기별 예방접종과 검사, 구급함꾸리기, 어린이사고와 성폭력 예방 및 사후조치, 주치의 활용방법 및 주치의를 맺을 수 있는 의원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소식과 소식

1. 바람직한 영유아보육/교육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난 7월 15일 오후 3시 성공회대강당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의 공동주최로 '바람직한 영유아보육/교육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본토론회는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 제기된 유아교육개혁안이 정부의 부처 및 관련학과, 관련기관 종사자간의 이해적 대립과 갈등의 양상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바람직한영유아 보육,교육 제도에 대한 좀더 근원적인 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70여명이 참가했던 본 토론회에서 김성재 한신대기독교 교육학과 교수가 '바람직한 유아보육,교육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이어 이천 YMCA 유성총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인 허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사가 각 단체의 입장에서 토론을 벌였다.

또한 학계를 대표하여 김종해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연섭 중앙대

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으며 학부모와 교사를 대표하여 김정희 공동육아연구원 부원장, 정희연본회의장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본 토론회에서는 공교육의 이념과 내용을 다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되었고, 현유아교육법안이 유아교육의 제도화과정에서 교육내용을 획일화 할 우려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본회에서는 정희연회장이하 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2. 여연대표와 간담회

7월7일 여성평화회의집 지하강당에서 여연대표와 본회 집행부의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여연측에서는 지은희상임대표, 남인순사무처장, 박기정 조직간사가 배석하였고, 본회에서는 정희연회장이하 집행부 5명과 연구소2명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날 다루어진 내용은 본회의 조직상황, 이후 전망보고와 법인추진사업 논의 등으로 여연의 회원단체인 본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은희대표의 고언을 들었다.

3. 「주게스토페디」 여름 연수 개최

한국보육교사회 여름연수가 서울, 광주, 부산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7월 말부터 3주에 걸쳐 진행된 「주게스토페디 통합예술교육」(강사-박성순원장)은 7월 25일, 서울, 송실대사회복지관, 130명 이수/ 8월1일, 광주, 전남대학교, 70명 이수/ 8월9일, 부산, 일하는 여성의



소식과 소식



집, 54명이수하였다. 지역보육교사회의 성실한 준비와 감사님의 혼신을 다한 강의, 참석자들의 열의가 돋보인 연수로 권역별 여름연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 좋은 기회였다.

4. 여연활동가수련회

8월 19일-20일 '여연 98 전국여성활동가 여름수련회'는 전북 번산 원광대학 입해수련원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여연 활동가 150여명과 자녀 50명등 총 200여명이 모여들어 대장사진을 연출하였다.

여연회원인 30여단체에서 주로 상근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오랫동안 사무실과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아름다운 자연과 좋은 사람들의 부대김속에 맘껏 풀고 자유를 누렸다. 프로그램은 미니올림픽, 몸으로 사귀기, 최신가요따라잡기, 캠프파이어, 명상과 요가, 자유토론등으로 수련회답지 않은(?) 수련회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참석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자아냈고 이 수련회를 준비한 여연 사무국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보내

기도 하였다. 본회에서는 서은희부회장, 최순옥사무국장, 박정애조직부장, 이선주, 유정은연구소 연구원, 위양자전부회장이 아이들과 함께 다녀왔다.

사 람 들

회비를 내셨습니다.
(98년 7월 3일~8월 28일 현재)

97년 미납분

서울: 박영미 97년 미납분 완

경기: 류필녀 97년 미납분 완

98년 2월분

서울: 이미옥, 박영미

98년 3월분

서울: 김정은, 남미영, 이미옥, 박영미

98년 4월분

서울: 김미옥, 남미영, 이미옥, 박영미

경기: 장운정

기타: 박상희

98년 5월분

서울: 김옥희, 김숙자, 남미영, 이미옥, 박영미

광주: 주경남, 박화명, 최미라, 유희원, 김경아, 이정미, 배미정, 김영금, 김영란, 김수중, 박말신, 천미애, 신연주

경기: 장운정

기타: 박상희, 황미혜

98년 6월분

서울: 김옥희, 김진숙, 김숙자, 남미영,

소식과 소식

이미옥, 이상옥, 민은홍, 박영미
부산: 김경해, 김명선, 김양희, 김지현,
노선희, 박정숙, 박희순, 전리라,
조영미, 조

경기: 서지혜, 장운정

기타: 박상희, 황미혜, 김량희

98년 7월분

서울: 김옥희, 남미영, 이미옥, 이선정,
이운경, 이선미, 이상옥,

부산: 김명선, 조영미, 최정임

경기: 장운정, 나은미

기타: 박상희, 황미혜, 정희연, 임남희,
서은희, 최순옥, 박정애, 이선주,
김량희

98년 8월분

서울: 주혜민, 박인해, 김수연, 이경녀,
황호정

경기: 이기원, 이주영, 강영신, 전경숙,
지연, 윤금주, 나은미

기타: 황미혜, 정희연, 임남희, 서은희,
최순옥, 박정애, 이선주

98년 9월분

기타: 황미혜, 오운정, 나은미

98년 10월분

기타: 오운정, 나은미

최병천(김량의 선생님 남편)님께서 5만
원 후원해주셨습니다.

오운정선생님께서 3만원 후원해주셨습
니다.

본회 7, 8월 일지

본회 7, 8월 일지

- | | |
|-------|------------------|
| 7/ 1 | 그림책 100권보기 |
| 7 | 여연 대표와 간담회 |
| 8 | 여연 조직위원회 회의 |
| 9 | 그림책 100권보기 |
| 14 | 집행위원회 |
| | 그림책소모임 첫모임 |
| 20 | 확대집행위원회 |
| 22 | 북부지역 교사모임 |
| 25 | 수도권 여름연수 |
| 28 | 집행부 하루 MT |
| 8/ 1 | 전주.광주권 여름연수 |
| 2-8 | 사무국 여름 휴가 |
| 9 | 대구.부산권 여름연수 |
| 11 | 집행위원회 |
| 14 | 여연 복지위원회 회의 |
| 17 | 확대집행위원회 |
| 18 | 그림책소모임 |
| 19-20 | 여연 전국여성활동가 여름수련회 |
| 21 | 북부지역 교사모임 |
| 25 | 집행위원회 |
| 27 | 여연 사무국장 연석회의 |



편집부에서

오랫만입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두달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가우시
죠. 예상치 못한 폭우로 온나라가 물난리가 났었는데 독자여러분은
비피해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올해엔 댜 이리도 많은 시련이 우리
를 괴롭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겠지요.
우리모두 힘냅시다.

쉽습어요.....

그동안 거의 5년간-출산휴가 6개월 빼고- 「우리네 아이
들」 편집을 해오신 황미혜선생님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셨습니다.
개인의 전장을 찾아 새롭게 공부를 시작한다니 어찌겠어요. 잡고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그동안도 조직의 애정으로 해주셨는데 공
부 열심히 하시라고 놓아드렸답니다. 황미혜선생님 정말 정말 뭐
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고맙구요,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황미혜선생님의 뒤를 이어 임남희부회장의 소개로 「우리
네 아이들」 편집은 전문편집인 김희정씨가 해주시기로 하셨습니
다. 독자들을 대신해서 환영, 또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표지사진 보내주세요

「우리네 아이들」의 얼굴을 보내주세요.

아이들의 모습(울고있어도 좋아요), 또 그런 아이들에게 담과
사람과 시간을 바치는 우리 교사들의 모습, 그리고 이땅을 살아가
는 여러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기다립니다.

회원여러분의 생각과 원고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독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계좌번
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후 연합회 사무실로 전화 확인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구요.
특히 본인 아닌 타인명이나 단체명으로 송금하실 때에는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교사의 대변지로, 다양하고 도움이 되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많
은 것이 사실입니다. 편집부의 헌신과 함께 회원들이 보내주는 각
종 아이디어와 원고가 풍부하다면 더 없이 좋은 소식지가 되리라
믿기에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아이디어, 또 교육현장과 생활현장
에서의 글을 보내주시면 감사 또 감사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주체적인 참여만이 「우리네 아이들」의 살 길(!)입니다.

메모란

소식

2011년 1월호

한국보육교사사회는 보육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한국보육교사사회는 보육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부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부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부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부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부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부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부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부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부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부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부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부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부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부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부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회장: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감사: 김명숙

교사선언문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회 회원이 되려면

본회의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지회나 지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각 단위에 회원신청서를 내고 정회원이 되기까지 준회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준회원은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단, 총회의 의결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회나 지부를 통하지 않고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의 관리 속에 한국보육교사사회 활동-총회, 수련회, 각종 세미나와 강좌를 할 수 있습니다.

준회원은 각 단위에서 결정한 준회원이비(가입비)를 내고 정회원과 동일한 자료나 회지, 중앙의 연락을 받습니다. 또한 준회원은 1년 이내에 신입교사교육(필수교육)을 받은 후 정회원으로 되며 회원결정은 각 지부, 지회에서 하며 이사회에 보고한 후 총회에서 인준합니다.

중앙으로 직접 들어오는 회원은 중앙에서의 신입교사교육후 정회원이 되어 그 회원의 주거지, 보육시설 위치에 따라 지부, 지회가 있는 곳은 그 곳으로 배치됩니다. 만약 지부, 지회가 없는 곳은 계속 중앙의 관리를 받으며, 이 회원들은 스스로 지역보육교사회를 조직하는 데 힘씁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려면...

한국보육교사사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 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실제 교육프로그램 및 영유아 교육의 이론 등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실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보육교사사회로 전화연락 주시거나 교사회 지부나 지회 등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료회비를 입금하신 후에는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송금구좌: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의연 (6개월 구독 16,000원 1년 구독 30,000원)

“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

정보 제공

- PC통신에 '어린이집, 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시설 홍보

-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교사 알선

- 선생님을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선생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연구 개발

-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이용

- 천리안 : GO BABY
- 하이텔 : GO BEBO
- 유니텔 : GO BEBO



본 화면은 하이텔 제공 예능입니다.